

##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비하겠다”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송구...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제대군인들,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등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명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영령에 대한 추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예를 바치고 국가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또 올해는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유엔기념공원(부산)을 3원 연결해 추모의 의미를 극대화했고, 식전행사인 ‘현충문 근무 교대식’은 격식 있는 근무 교대식을 통해 현충원 안장자에 대한 추모의 예를 갖추고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향후 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 김 총리 “예방접종 배지,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에 대해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배지를 직접 달고 나온 김 총리는 “정부의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배지 자체는 증명력은 없다”면서 “그래서 모바일 앱에 익숙한 젊은 층을 제외하고 어른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다”며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방접종의 목적은 고령층 보호로,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19일까지 잔여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기에 혼선이 있어서 확인을 했다”면서 “일부 행정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로 예비명단에 등록 하시거나, 네이버와 카카오앱으로 당일 잔여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방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형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일상 속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이 안정되어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는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현장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제때 강화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방역에 협조 해주시면 이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조기에 코로나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6일 현충일을 언급하며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신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술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협력해주시고 용처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 서울시,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

서울시는 2021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도서관 꿈새김관을 6월 4일 새롭게 단장한다.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국내외 6.25 참전용사들의 흑백 사진이 돋보이는 이번 꿈새김관은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흑백사진은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 사진을 찍는 라미 현(현호재) 작가의 ‘프로젝트 슬져’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라미 현 작가가 2017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 만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강원 등 전국 각지의 국군 참전용사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UN군 참전용사 총 131명의 사진이 이번 꿈새김관에 담겼



다. 서울시는 라미 현 작가의 프로젝트 취지와 의미에 크게 공감하여 이번 꿈새김관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 라미 현 사진작가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꿈새김관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2021년 호국보훈의 달 특집 꿈새

김관은 서울광장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꿈새김관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시정종합월간지「서울사랑」에서는 ‘영화와 소설로 살펴보는 그날들’ 이

라는 기획 기사를 발행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또한 6월 4일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는 추모, 용서, 기도 등 경건한 선율을 담은 현악3중주단 ‘트리오 안소베’의 클래식 연주가 열린다. 본 공연은 추후 시민청TV(유튜브 및 네이버TV)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며, “지면의 한계로 모든 참전용사의 사진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번 현충일을 계기로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 [칼럼] 누가 나와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인데 하늘 위와 아래에 내가 있어야 모든 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신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자신이 있어야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우주가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간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애국지사는 물론 전쟁터에서 고지전을 벌이며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귀한 자신보다 나라를 우선시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지금의 우리네 세대들도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한국보다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과연 그럴까. 한국전쟁 전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북한도 남한보다 더 경제력이 우월했다.

하루아침에 이렇듯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과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은 아닐진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만과 거만 이 하늘을 찌르고 언제부터 복지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일하는 국민보다는 머리 잘 쓰는 사람, 요령껏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었다.

공직사회에서 정보나 빼서 요리조리 부동산 투기나 잘 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일확천금이 미래를 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을까. 이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가. 어찌 잦은 나라이며 자유인가. 미국의 원폭덕분에 덤으로 얻은 광복이었다.

한국군이 버리고 갔던 했지만 근본적으로 항복한 건 원폭이었고 자유 또한 술한 최후탄을 마셔가며 군사독재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필자 또한 1988년 탄광 지대의 석탄 합리화 사업에 반대하며 민주시민회의 선봉에 섰다가 서슬퍼런 보안대 형사들로부터 협박과 곤욕을 치르며 태백 땅을 등진 과거가 있었다.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모종의 수업을 치르고 얻은 국가이자 주권회복이었다. 하지만 영·호남으로 분리되고 판대세대와 젊은층으로 구분되며, 여성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진정한 여성의 가치가 추락하며, 당초 자유가 이념 갈등의 소재로 변질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가.

견해 차이가 국론의 원인이 아니라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호국보훈의 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충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아깝다는 말을 들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철이 없을까 싶다.

오늘 하루만 태극기 앞에 고개 숙이고 기자들이 사진 찍어 홍보하면 애국자일까.

전몰군경 유족이나 경제적으 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에게 소리 없이 방문하여 손 한번 잡아주고 적은 돈 이나마 지갑을 털어준 것이 있던가.

그 많은 예산 중 애국하면 가난이 3대라는 말이라도 헛소리임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 군기와 인권의 양날의 칼이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한다. 필자가 1986년 육군 병장 근무 시절만 해도 말끝마다 통신보안하던 연락망이 요즘은 개별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상급자가 까라면 썰음으로 방송이도 까야 한다는 군대는 사라졌다.

과연 그럴까. 인권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엄격해야 할 군기만 사라진 않았을까.

최근 군인들의 식사 내용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번씩 터지는 군부대 비리를 보면서 향후 이 나라에 국난이 닥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려된다.

그 많은 국방비 중 일선에서 총을 들고 지켜야 할 군인들이 식사, 군량미가 허술한데 무슨 애국심과 전투력 향상을 기대할 것인가. 자주국방,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우리영공, 우리바다,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킨다? 군 통수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며 미 연합 합동사령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전쟁이 난다면 과연 어느 국가가 적국이 될까. 72년 전처럼 북한이 주적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일본일까. 한미합동훈련이나 대부분의 군 전략전술은 북한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그동안 국난의 위기에 따라 희생된 군인들을 위해 국민과 국가가 얼마나 기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치 흐름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언론의 장단에 국민들이 춤을 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흔히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을 비교하기도하고 오랜 경력의 장군도 공판병의 제보로 하루아침에 별뿔벌이 되는 현실이다. 잘못을 떠나 언론은 여론을 이끌고 여론은 곧 절차나 검증 없이 정리가 된다.

최근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4일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다.

일선 경찰관이 사고를 쳐도 경찰청장이 같은 지휘 책임이 따르지만 자칫 방치했다가는 여성단체와 국민 여론이 돌풍같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니까 대통령도 분노를 감추지 않고 6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차려진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론이 무서워 뒷부분부터 정리된다면 그만큼 인제가 사라진 만큼 신성한 국방의 지휘능력에 대한 공백은 어쩔 것인가.

만약 공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어도 군 전략에 별 차질이 없다면 처음부터 있으리나 하나 큰바 뿔뿔이란 결과 밖에 더 되지는

가. 더욱 가혹한 절차와 징계를 내리더라도 일시적인 민심달래기로 비취질 수 있다. 공군 파일럿 한 명을 육성하려면 경전투기 1대 사오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전 세계의 어떤 공군이든 공군장성의 절대 다수는 조종사 경력자다. 전투기 기종 전방성 출신이어야 장성 진급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공군의 중장급 이상은 모두 포함된다.

별 4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개인의 영광보다 국방의 역할이 더 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전분의 일이라도 성 범죄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방법이 일회성 난리보다 효율적인 매뉴얼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군 여중사의 이번 사건 피해 내용만 돌이켜 보더라도 얼마나 성범죄에 대한 관리와 허술함이 많았는지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환경을 방지해 두고 장군 하나 날린다고 달라질까. 아니나. 소나기만 피해갈 뿐 상대적으로 추락하는 공인들의 사기 저하는 일단 유사시 전쟁에 나설 의지를 꺾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덕암/김균식



#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



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연계 감액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 2030년에는 지금의 약 두

배가 된다. 연계감액제도가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할 때"라면서,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차원에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를 공론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정부가 빼앗지 않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 서범수 의원, 부산·경남·대전·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7명의 구성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1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15개 명 중 여성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5명 중에도 여성은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구성된 15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총 104명을 살펴보면, 남성은 86명에 달하고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하여, 40%의 여성 비율을 구성하도록 한 자치경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추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친분·인맥 또는 정치편향성 의혹이 제기되는 추천·지명 사례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천한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은 박남춘 시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민주평통경남부회장은 김경수 도지사후보의 후원회장 경력과 경남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밝혀졌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송철호 울산시장에 추천한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001년 낙천·낙선운

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 총장은 2012년 문재인 당시 후보의 핵심 지지세력이었던 담쟁이포럼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은 예비후보 당시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강영길 전 부산학교안전정책회 이사장을 추천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제5대 교육감 당선인 시절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춘천교대 동문인 조성호 전 강원교육청 교육국장을 추천했다.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전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순관 한국미술협회 제주지회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다.

또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시·도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경우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야가 합의하였는데, 이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산, 울산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회추천위원회 등의 민주적 절차 없이 2명의 위원을 단독으로 추천하였으며, 각 시·도 자치경찰 추진단에서 시·도 의회로 보낸 위원 추천 공문에도 국회의 임명 취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권 확립을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법 제정의 취지가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착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자치경찰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올 7월 시행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임명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김원이 의원의 홍보소통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1대 국회 1년 차 원내부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당직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보소통위원회는 당 사무처 소속으로 당의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와 디지털소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게는 당의 정강·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에서 시작해,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당의 홍보를 전담하는 곳이다.

김 의원은 "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를 앞두고 주요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한 우리당의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소통위원장 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일기자

# 송갑석,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금) 국회의사당 중 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기술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영업 정보를 탈취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수년간 국정감사 및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LG 전자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과 3년 연속(2018-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덕윤기자

# 서울시의회 대변인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만들어 나갈 것"

서울특별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지금껏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를 숨 쉬게 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 대변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한

분 한 분을 우리 마음 속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기억하겠다"며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와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등 목숨을 다 바쳐 헌신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세위한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국기계양이나 묵념 등을 통해 잠시나마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이

들의 희생만큼이나 헌신과 포용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추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더욱 충

싹히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봉암도전석탑, 고추말리기, 반딧불이전문대, 은평나무, 서석지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주는**  
**영양군의의회**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부/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 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측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이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특히 RE100, ESG 경영에 앞장서주셔서 감사하다”

4명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



미로 인해 삼성의 대미 협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제2의 팽택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이선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 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은 후세대에 대한 현대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생전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이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

다”는 말을 전했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 지 3년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을 하거나 수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며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된 건을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용차도 수소차이고, 청와대의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오찬 간담회는 내내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청와대에서는 4명의 그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준비했고, P4G 정상회의에서 수소차에 부착했던 차량번호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연출된 기후정상회의 상준재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증정했다.

최광수기자는

# “미사일 족쇄 풀린 韓 로켓... 우주개발 어떻게?” 조승래 의원, 긴급토론회 개최

조승래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우주 산업 활성화 계기로 만들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는 7일 오후 3시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이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고,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안재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토론한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미사일지침 해제를 계기로 민·군

간 기술이전·교류 활성화, 우주 산업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번 기회를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승래 의원실 블로그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사전 신청 없이도 ‘국회의원 조승래’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전승희기자



#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내달 1만원으로 인상...배달음식 월 2회로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회의...배식 대신 현금지급도

카페형 군마트 설치·훈련병 휴대전화 사용...병영문화도 개선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으로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군 급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 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이 전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어떠한 조건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

마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제약 요인과 극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절저히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조달 방식 대신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피복분야에서는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편마 아니라 착용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 품 보급 적극 확대 등 계약 및 조달제도의 근본적 변화 추진, 피복류 통·폐합과 품질 개선, 품질 보증 활동 강화 등 검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2022년 육군훈련소 신축 및 개수에 착수해 교육생 생활관 개선을 조기에 추진한다.

또 노후 취사식당을 문화·휴식공간으로 개선하고, 서복도서 등 급수취약지역 등 상수도 연결, 코로나19 격리장병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민간숙소 인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병영분야에서는 MZ세대인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군내 다양한 고충 제기 장구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하고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등 추가 개선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예산의 70% 지원에서 전제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군마트의 카페형으로 개선 등 병 복지환경 및 여가여건을 개선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

사 취업지원 여건 조성 등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이동, 상담, 행정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민간병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장애보상금 지급 범위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은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되는 등 민·관·군에서 모두 참여한다.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식기자



# 경기도 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Live회의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지권에 제한해서 일부 임박안이 발의돼 있던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

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가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 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전환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같은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할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반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반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반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당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이번 회의는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소철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최근수기자





## 성북구, '영원불멸 금을 입다 - 금박金箔, 금수金繡, 직금織金'展 개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성북선잠박물관에서 특별전 '영원불멸 금을 입다 - 금박金箔, 금수金繡, 직금織金'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는 우리 옷에서 영원불멸 빛나는 금을 만날 수 있으며 10월 3일 까지 이어간다.

예로부터 금은 특유의 화려함으로 아름다움과 부귀,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최적의 재료였다. 우리나라는 이른 시기부터 금을 의복과 장신구에 사용해 왔고 고려, 조선시대까지 금박과 금실을 이용한 공예가 꾸준히 발전해왔다. 직물에 금을 붙이는 금박金箔, 금실로 수를 놓는 금수金繡, 금실을 엮어 직물을 짜는 직금織金, 우리 옷에 빛나는 금을 통해 영원불멸 찬란한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 무덤 '파평윤씨 모자' 미라 출토 솜 단 저고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당의 등 우리 옷에 새겨진 금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이번 전시에서는 2002년 고려대학교박물관이 발견·연구한 파평윤씨 모자(母衣) 미라 출토 유물 중 조선시대 전기의 직금織金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저고리 한 점과 재현된 한 점을 선보인다. 파평윤씨 모자 미라는 뱃속에 아이를 간직한 채 발견된 세계 최초의 미라이자 조선전기 복식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또한 2015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돌아온 덕혜옹주의 유품 가운데 조선왕실의 금박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당의와 스란치마도 함께 선보인다. 덕혜옹주는(1912~1989)는 고종 황제와 귀인 양씨에서 태어난 왕실의 유일한 왕후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초록색 당의와 빨간

색 스란치마는 덕혜옹주가 돌 무덤에 입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으로, 유아용이지만 왕실복식의 격식을 갖추고 있는 유물이다. 특히나 덕혜옹주 당의에 있는 보충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흉배에 들어가는 봉황 문양이 아니라 용이 금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느낄 수 있다.

파평윤씨묘 출토 복식과 덕혜옹주의 복식은 7월초까지 전시되며, 이후 조선시대 금수金繡 작품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조선시대 유물과 더불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 김기호와 김기호,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초대보유자 대한상수 등 근현대 장인들이 제작한 금박·금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어 우리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김기호(1935~2019)는 조선시대 절충대부터 가업을 이어 금박일에 종사하였으며 2006년 금박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2018년 명예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타계하였다. 김기호는 선친인 김기호를 이어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아내인 이수자 박수영과 함께 전통 금박공예공방 금박연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수(1932~2016)는 1953년 자수의 길에 입문한 이래 꾸준한 작품 활동과 후학 양성을 통해 종합 예술 장르로서 자수의 위상을 높였으며 198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초대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부자간인 김기호·김기호 장인, 그리고 모녀간인 대한상수 장인과 고대 섬유복식연구가이자 자수장 이수자인 김영란(현현 한상수자수박물관)의 작품을 함께 배치하여 전통 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벽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직금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통 문직기紋織機를 이용해 다채로운 색상과 화려한 문양의 직금 직물을 제작해왔다. 하지만 전통 문직기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 사용이 줄어들고 근대에 접어들어 기계식 문직기인 자카르기로 대체된 까닭에 현재 그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한국과 중국의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전통 문직기의 모습 제시와 동시에 전통 금직 기술의 복원과 재현에 힘써온 고대 금직 분야 연구자 노진선 박사가 재현한 직금 작품 7점과 고대 섬유복식연구가 김영란의 4점교과 1점을 선보인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함께 기획중이다. 화려하고 찬란한 우리 옷의 '금'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면서 금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21년 7월부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김기호 금박장의 강의와 체험교육으로 시작하여 김영란 한상수자수박물관장, 고대 직물 연구가 노진선 박사와 함께 화려하고 부귀한 멋에 소망을 담은 금박, 금수, 금직물 관련 강의와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북선잠박물관은 조선시대 중요한 국가의례였던 선잠제와 누에, 비단 관련 유물을 연구,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조선 왕실은 매년 봄 선잠단에서 누에치기의 창시자

인 서릉씨에게 제사를 올리고 왕비가 직접 누에치기의 모범을 보이는 집잠례를 거행하면서 백성에게 누에치기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해왔다. 2018년 개관 이래 비단, 자수 등 실의 미학을 전하는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성북선잠박물관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과 SNS를 이용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 구로구, 제3회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 개최

10일 구로아트밸리 콘서트, 10~24일까지 갤러리 구루지서 전시회 열어

구로구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3회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 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는 사전 예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주주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구로구, 구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올해 6월 항쟁 34주년 기념사업회 추진 중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구로구, 구로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다.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에서는 콘서트, 전시회 등 참여형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0일에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구로아트밸리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이 담긴 이번 콘서트는 안치환과 자유밴드, 손병휘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주민 30여명이 릴레이 낭독하는 영상도 소개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8일까지 사전 예약하면 된다.

10일부터 24일까지는 6월 민주주의 기획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가 갤러리 구루지 1-2 전시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구로의 민주주의 역사 관련 사진, 자료와 함께 구로 민주주의 영상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회차당 최대 25명이 관람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희망일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미성/기자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기획예산과(02-860-2283)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용산구,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호응'



“구에서도 시장 상인분들 얘기를 듣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구가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이충종합시장을 찾은 성정현 용산구청장이 이같이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구청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이어진다.

지난 2일 진행된 이촌1동 현장 방문은 이촌치안센터, 이촌종합시장 순이었다. 성 구청장은 치안센터 개소 1주년을 축하했으며 이촌종합시장 상인들의 각종 요구사항도 들었다.

향후 주요 방문 예정지로는 ▲ 동자동 43번지 일대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 ▲ 옛 청과2동 청사 리모델링 현장 ▲ 용문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현장 ▲ 휴장공원 일대 도시재생 상점가로 조성지역 ▲ 남산대림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 현장 ▲ 한남역 주변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 현장 ▲ 한남오거리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장 ▲ 서빙고동 자투리땅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현장 등이 있다.

지역 숙원사업, 주요 역점사업 현장으로 장소를 정했다. 후암시

장, 남영동 먹자골목 같은 주민 생활밀착 현장도 방문지에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동별 현안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정현 구청장은 지난 2012년부터 동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기간을 정해 16개 동 경로당, 어린이집, 교육시설, 민원현장, 위험시설 등 현장을 찾았다.

2018년에는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원효로실내다목적체육관 등 거점 7곳을 정해 권역별 주민들과 보육·복지·평생교육 등에 관한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동 현장소통 중 구청장이 직접 강사가 돼 지역사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구민들에게 소개하는 '역사토론 용산' 행사를 진행, 호응을 얻었다.

성정현 용산구청장은 “지나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소통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 한다”며 “민원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찬식/기자

## 인천시, '제26회 환경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진행

인천광역시시는 6월 5일 '제26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다양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박남춘 시장은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지금 바로! 실천이 필요한 때!’라면서 “인천에서 시작한 환경특별시를 향한 행동 하나 하나가 우리시를 넘어 전 세계까지 퍼지는 나비효과로 나타나길 바란다”며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서 5월에 진행된 다양한 시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해 환경의 날 행사는 '머물러 살고 싶은, 환경특별시-인천!'을 주제로 공모전 온라인 전시, 친환경시절 홍보영상, 유공자 표창 등 관련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환경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머물러 살고 싶은, 환경특별시-인천!' 환경의 날 슬로건을 비롯해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어린이 환경그리기 대회, 환경UCC 공모전 당선작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친환경 환경시절 홍보영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남/기자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당선작은 6월 4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현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후 관내 주요 쇼핑몰 등에서도 순회 전시 예정이다.

또 환경의 날 홈페이지에서는 6월 11일까지 SNS를 통한 환경보전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때 정답과 함께 '인천환경의 날', '탄소중립' 등의 단어를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 또는 영상과 올린 후 환경의 날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물을 등록하면 주점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친환경 환경시절 홍보영상과 뽀로로와 함께하는 '비행분 석송'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6월 4일 하루 동안 시청 중앙홀(11:00~13:00), 연수 스퀘어원 야외광장(14:00~17:00)에서 커피박 화분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해 아이스팩이나 패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시민에게는 커피박 화분과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시민들과 하천정화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구에서도 다양한 환경실천 캠페인을 추진 예정이다.

## 은평구, 전통시장 현대화로 '굿 쇼핑'

전통시장이 변신하는 자치구가 있다. 은평구는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에 위해 적극 노력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은평 연서시장은 전통시장의 편견을 깨고 있다. 깨끗한 위생과 철저한 방역으로 상인들과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구가 전통시장 위생정기 점검과 올린 후 환경의 날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물을 등록하면 주점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친환경 환경시절 홍보영상과 뽀로로와 함께하는 '비행분 석송'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6월 4일 하루 동안 시청 중앙홀(11:00~13:00), 연수 스퀘어원 야외광장(14:00~17:00)에서 커피박 화분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해 아이스팩이나 패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시민에게는 커피박 화분과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시민들과 하천정화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구에서도 다양한 환경실천 캠페인을 추진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전통시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교육, 경영자문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4개소(대조시장,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증산종합시장)에 시장별 특색에 맞는 마케팅 지원과 상인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일반 경영자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역시 총 예산 1억7천200여만원 중 94%에 해당하는 1억6천100여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 구의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지원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이다. 각종 사업의 예산은 많은 부분을 국·시비 등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이 펼친 적극 행정의 성과라 볼 수 있다. 연서시장의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에서 주관하는 시장특성화육성(문화관광형) 사업 2년차에 선정되어 가격표는 물론 원산지 표시도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지원되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총 예산 8억8천만원 중 81%인 7억1천600여만원을 국·시비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연서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위해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대림시장 역시 특성화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첫걸음 사업 컨설팅을 9월부터 전역 국비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젊은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장내 영유아 돌봄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 및 연서시장 '아이즈아 돌봄센터'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 색칠하기와 퍼즐 등을 통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에 나서는 부모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력을 위한 청년상인도 육성중이다. 청년상인 정착을 위해 임대료의 50% 및 교육과 컨설팅 지원과 영업 확대를 위한 유동 전문 매니저 지원 등으로 청년상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동행세일 이벤트도 열렸다.

이벤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비대면 위주의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는 한편, 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장쿠폰 경품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관내 대조시장, 제일시장, 대림골목시장, 연신내상점가, 응암오거리상점가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 활성화 공동 이벤트를 연 것이다. 김미성 은평구청장은 “각종 전통시장 지원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안내견 출입환경 캠페인 추진

# 종로구, 코로나 위기 속 희망 전하는 '운동주문학제'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장애인 안내견 출입 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6월 말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견은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경' 캠페인을 전개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픽토그램 스티커를 제작하여 구, 동주민센터 등 관내 공공기관에 배부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협력하여 식당 등 식품위생업소에 픽토그램 스티커와 함께 '안내견 출입 보장' 홍보전단지도 배부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청 등에 관한 절차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와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게재해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와 협력하여 관내 병원, 마트 등 민간 기업으로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경' 캠페인을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 3월 안내견 출입 보장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종로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과 6일 양일간 운동주문학관(창의문로 119) 일대에서 '2021 운동주문학제'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운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밝고 따스한 성격을 지닌 '새로운 길', '산골물', '봄'1942작, '아침'을 주제 시로 선정했다.

청운동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며 시인의 격조 높은 문학작품과 음악을 즐기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첫 날인 6월 5일에는 '제7회 전국 운동주창작음악제' 수상자 4팀의 창작곡과 더불어 '제8회 전국 청소년 운동주시화공모전' 수상자 30명의 시화작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한다. 전시는 8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같은 날 시인의 언덕에서는 축하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린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운동주의' '스와뉴랜드'를 시작으로 운동주창작음악제 수상자 4팀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어서 6일에는 지난해 운동주창작음악제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던 수상팀 '타래', '한다DO', '두레소리', '판소리트레블러KA2729'가 출연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운동주 시인의 시로 엮

서를 제작하는 '내 손으로 만드는 날 활자 엮서 체험', 나만의 손글씨로 옮겨 적는 '운동주 시 원고지 필사 체험', 운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어가 담긴 자개모형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 운동주문학제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동주문학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2012년 7월 운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쓰지 않는 가압장과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활용해 '운동주문학관'으로 재탄생시켰다.

문학관이 자리한 청운동 인왕산 일대는 그가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산책을 즐겼던 곳으로 시인의 체취가 남아있어 의미를 지니는 장소다. 또한 인근에는 문학관과 함께 '시인의 언덕', '청운문학도서관' 등이 위치해 종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운동주 시인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대게 하는 희망과 위로를 건네고 있다"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국의 자유를 꿈꿨던 영원한 청년시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영등포구, 돌봄SOS센터에서는 지원사례 담긴 카드뉴스 제작

영등포구는 돌봄SOS센터의 서비스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그림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는 사업의 핵심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매체로 활용이 가능해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제작한 카드뉴스는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들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과 직접 만나며 겪은 미담사례를 주제로 제작되었다.

카드뉴스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영등포소식→그림이야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개 동 단위 돌봄SOS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하루 한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식사지원서비스, ▲긴급 필요시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가 게시되어 있다.

식사지원서비스 카드뉴스에는 매년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어르신, 뇌경색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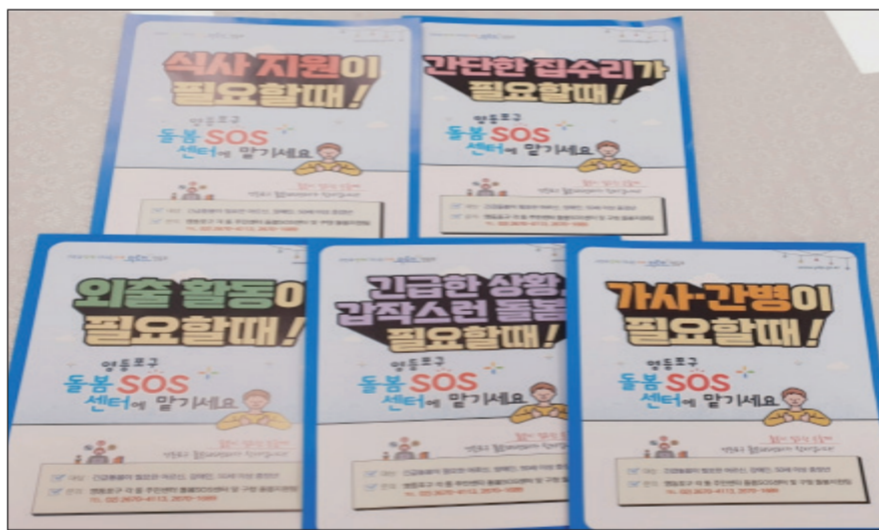
로 식사 준비가 힘든 취약가구, 고령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음식 조리가 어려운 식사를 거르고 있는 가구에 영양만점 도시락을 전달한 사연이 담겼다.

동행지원서비스 카드뉴스에는 심한 지적장애로 은행업무가 어려운 장애인, 장기간 당뇨병을 앓아 망막 시력저하로 병원방문이 힘든 취약가구, 요양병원 입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돌봄SOS 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해결한 사연이 실렸다.

아울러 구는, 돌봄SOS센터의 주력 사업인 ▲일시제, ▲동행지원, ▲식사지원, ▲긴급 돌봄, ▲주거편의를 주제로 한 5종의 포스터와 전단지도 추가 제작하여 서비스 홍보를 이어간다.

포스터와 전단지에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용 절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 돌봄SOS센터 연락처가 담겨 있다.

홍보물은 18개 동 주민센터로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



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카드뉴스도 단기 시설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안부확인 등 매일 한 가지의 서비스 주제를 선정해 제작하고, 구·동 홈페이지와 영등포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SNS 매체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긴급한

상황,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할 때 주저함없이 돌봄SOS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복지정책 마련은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 접근성·인지도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주민 누구나 불편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강동구, 전국최초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 인천 서구, '위드 코로나 시대'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 열어

강동구가 5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4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당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원까지이다.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지역화폐인 빗살머리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신고의무자인 공무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고는 발견된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위기가구' 찾고, '빗살머니 받고!'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이 주변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인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외식문화 변화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서구 관내 초·중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감염 예방을 위해 덜어 먹는 식사문화 정착·청결한 음식문화 개선, 음식점과 가정에서 건강한 식단 실천,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의 문제점 개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 등의 내용으로 서구청 식품산업 위생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 중 접수된 작품들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우수 작품으로 선정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상 및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표창을 받게 되며, 향후 음식문화 개선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공모되길 기대하며,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 강동구, 전국최초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 "어린이들의 관심이 음식문화 개선 실천의 시작!"





# 광명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은하수' 공개 모집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로 도시를 만들고 문화로 도시를 재발견해 나가는 광명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은하수'를 공개 모집한다.

광명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서로 교환하고 그 교환된 이야기들을 주제로 의제를 발굴하는 시민추진단 활동을 진행한다.

광명문화재단 어연선 대표이사는 "광명의 행정 체계 구조와 사회 규범 양식의 준수는 다른 지역과 같을 지라도, 지역에서 자라나는 문화예술의식과 시민문화는 모두 다르며 모두 특별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 특별함을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광명시민이 서로 깨닫고 공유하는 광명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은하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광명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은하수'는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모든 광명 시민은 특별하다. 그래서 광명이 특별하다'는 마음으로 문화 도시 교육을 준비했다.

△도시에 대한 문화적 접근: 도시란 무엇인가 △광명을 알아보기: 도시, 광명, 나 △문화도시 이해: 문화로 행복한 도시 △광명을 상상하기: 도시, 문화, 문화적 삶 △시민의 힘: 문화도시와 시민참여의 중요성 △광명을 채워가기: 도시, 시민, 미래 △시민의 역할: 사례로 본 문화도시 △광명과 같이 가기: 도시, 시민, 거버넌스 등 총 8회의 교육 안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아카데미 교육이 실시된다.

광명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은하수' 활동을 희망하시는 광명시민분들은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신청 마감은 6월 11일 오후 2시, 2차 신청 마감은 7월 9일 오후 2시까지다. 문의는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으로 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 파주시, '2021 파주시 도시농업 사진 공모전' 개최

파주시는 도시농업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시민소통과 참여를 유도해 도시농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21 파주시 도시농업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시농업사진 공모전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에 앞서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도시농부의 모습과 농사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파주시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공모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본선 진출 작품은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에 전시돼 관람객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반영해 총 5개 작품을 9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파주시 도시농업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총 5팀의 수상자들에게는 파주

농산물을 상품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신장재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농업에서 느끼는 자연의 소중함과 바른 먹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진으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안양시, '런위드안양' 시즌3 완주 최고의 결실은 건강!

### 참가자들의 개선된 비만도 및 높은 만족도로 유의미한 성과

안양시의 비대면 건강증진 특화 사업 '런위드안양' 시즌3가 참가자들의 호응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런위드안양'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러닝 앱 등 3단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시민들이 건강달리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시민 건강증진사업이다.

이번 '런위드안양' 시즌3는 건강달리기와 친환경 테마를 접목한 'Act Green! 건강달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4~5월 6주 동안 500명이 참여했다.

시즌3 유료식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 비대면 방식과 개인별 대면 방식을 병행했다. 온라인 유료식은 숫자로 보는 런위드안양, 우수참가자 발표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전 예약을 한 참가자들에 한해 개인별로 인바디 측정을 실시하고 보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참여자들의 비만도가 크게 낮아졌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건강달리기 참여 이후 건강평가를 위해 참가자 338명의 인바디를 측정한 결과, 1인 평균 체중은 1.1kg, 체지방률은 1.5% 감소하는 등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가자 중 93.5%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했으며, 96%는 '런위드안양'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건강달리기와 친환경 활동 등 의미 있는 도전에 열심히 참여한 시민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런위드안양'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한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런위드안양' 시즌4가 시작되기 전까지 카카오톡 채널(@런위드안양)을 통해 매월 1회 이벤트 러닝 미션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준경/기자



# 여주시 흥천면, "따뜻한 밑반찬" 아름다운 봉사

여주시 흥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4일 주민자치센터에서 6월 1주차 "따뜻한 밑반찬" 봉사활동을 가졌다.

아침 8시부터 흥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밑반찬을 만들고 자치위원들과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50가구에 반찬을 배달 하였다. 이번주 반찬은 비타민우침, 어묵볶음, 전, 새우마늘종볶음으로 이루어 졌으며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반찬재료 및 각종 양념을 후원 받아 이루어 졌다.

허인무 흥천면장은 매주 맑은 얼굴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봉사자들이 있어, 한 주가 행복하게 마무리 된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최근수/기자



# 여주시, 목사 류주현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연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여주시 여주박물관에서는 목사 류주현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과 연계하여 6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인생 한 구절"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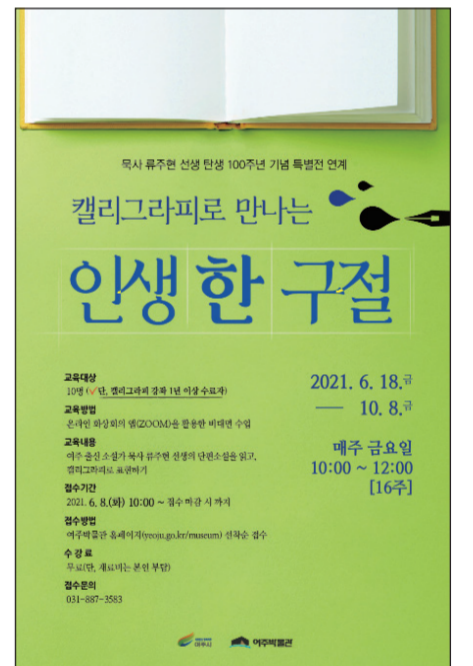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목사 류주현 선생의 100여편의 단편소설 중 대표 작품을 수강생들이 읽고 관람객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구절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고, 여마관 1층 로비전시실에 전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앱(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1년 이상 캘리그래피 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급(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여주박물관 홈페이지로 선착순 접수 받으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휴대전화 등의 통신환경에 따라 요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업 전에 와이파이(Wi-Fi) 및 무선통신의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목사 류주현 선생은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 '대한제국', '파천무' 등 120여편의 장단편을 집필하고 대하

역사소설의 분야를 개척한 소설가로, 현재 여주박물관에서는 장남 류호창씨로부터 100여점의 작품 및 유품을 기증받아 2010년부터 황마관 1층 류주현 문학전시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류주현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노후화된 전시실을 리뉴얼하여 관람객에게 새롭게 선보이고자 한다.

최근수/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 용인시, 공약이행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

## 백군기 용인시장, 2021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우수 평가

용인시는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1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A등급(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전 평가 결과는 B등급 내지 C등급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6년 출범한 공약 평가 시민단체로 매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여부, 목표달성 여부, 주민 소통, 웹 소통, 선거공보와의 공약 내용 일치 여부 등 5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결

과는 SA, A, B, C, D, 불통으로 나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5월 현재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81개로 공약이행 완료율 65%이며 이행률은 89%다.

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고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도시건축 4대 개선책 시행, 녹지공간 확충, 도로확충 등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공약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을 통해 공약 실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경강선 연장 등 교통망 확장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다방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이천 마장초, '찾아가는 서희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

마장초등학교(교장 김영숙)는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하는 '2021년 찾아가는 서희 리더십 아카데미'에 지난 5월 31일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찾아가는 서희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천 내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가 교실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와 함께 이천의 역사적 인물인 고려의 외교관 서희의 리더십 기술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사회생활 중 자연스럽게 만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역사 이야기와 재미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장초 5학년(이도희) 학생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칼과 무기보다 말로 상대를 설득한 서희 선생님이 대단하고 본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김다희)은 "친구와 다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몸으로 하지 않고 말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업을 참관한 마장초등학교 교사는 "지역기관과 학교와의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학생들이 점차 우리 고장과 우리나라를 이끌며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즐겁게 익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자료 공개구입·기증도 받습니다.

## 내년 개관 앞두고 세계적인 그림책 플랫폼라키비움으로서의 출발 신호탄

군포시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그림책박물관공원의 전시·교육·연구용 자료를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구입대상은 그림책박물관공원이 들어서는 옛 군포배수지 관련 유·무형 자료들을 비롯해, 그림책 원류에 해당하는 각종 자료 등 시기별 원화와 작가소장품, 경기 중부지역 작가 관련 자료, 군포시 그림책 관련 시민단체 활동자료 등이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단체 등은 군포시청 문화예술과 박물관조성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문화예술과 박물관조성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구입 여부와 가격이 결정되며, 구입대상 자료는 일정기간 인터넷 화상공개를 통해 도난문화재 여부 검증 등을 거쳐 매매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본인에게 반환된다.

시는 자료 구입과 함께 기증도 받는다.

그림책박물관공원 개관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증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할 수 있다.

기증자에게는 자료기증서를 수여하고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한편,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그림책박물관공원 내에 성명을 게시할 계획이다.

자료 구입은 6월 30일까지며, 기증은 1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그림책박물관공원을 세계적인 그림책 플랫폼, 그림책 라키비움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은 시청 인근 한일근린공원 내 옛 군포배수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3,800㎡ 규모로 내년 상반기 안에 문을 열 계획이며, 그림책 전시, 독서, 기록, 교육, 기타 편의시설을 포괄하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원종균/기자



# 수원문화재단,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 개최

## 경기도 내 문화도시들 간 상생 및 협업 기반 마련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25일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 -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를 개최한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경쟁 심화를 고려하여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경기도 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지자체를 초대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의 '지역문화와 문화도시' 기초 발제를 시작으로 지금중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의 '문화도시 넓게 읽기' 발제를 진행한다.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천시의 김기석 부장(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이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 성과평가 중심'을 제3차 예비문화도시 오산시의 임현호 팀장(오산문화재단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이 '원더테이블 오산담:多'를 이선옥 센터장(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대화와 실천의 힘'을 사례 발표하고 사업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함께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많아졌으면 한다. 모든 도시가 특별한 만큼, 경쟁을 넘어선 우정과 응원의 문화로 경기권 문화도시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사전 참가 접수자에 한해 현장 운영한다. 추후 수원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문화재단은 이달 25일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을 시작으로 3일간 인문문화도시 사전프로그램 '문화도시실천실험'행사를 교통과 항공동 등 원도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교통 예술실현단 △인문실천콘서트 △문화도시 수원 사용 설명소 △드로컬 직거래장터 '수문장' 등이 있다.

최정근/기자

# 구리시, 특수법인 구리시체육회 설립등기 절차 완료

##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해 나갈 것

구리시는 지난 2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체육회(회장 강예석) 특수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수법인 구리시체육회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및 대외 신뢰도 확보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체육인의 인권과 권의 보호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강예석 구리시체육회장은 "특수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준비위원회 위원들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및 관련기관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지역 체육진흥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체육회 법인등기 완료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리시체육회가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체육회는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준비위원회」 및 「장립총회

(제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5월 18일 구리시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취득해 특수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최만식/기자

# 최종환 파주시장, 미래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표

## 미래 자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열려

파주시는 3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파주시의 미래교육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출범했다. 현재 전국 63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 도시인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이광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권역별 대표도시 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파주시의 사례를 발표했다. ▲DMZ생태, 마을역사, 평화통일 체험처를 활용한 학교와 마을 협력모델 개발 ▲전국 최초 모든 읍·면·동 공공도서관 건립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범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시설 파주늘이구름 개소 등 지역의 좋은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가치교육을 펼치고 있는 파주만의 특색교육을 설명했다.

파주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에 급격한 변화에 맞닥

충 1,002억 원을 지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교육의 혁신은 지역사회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며 "파주시의 미래인 모든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파주의 특성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광역행정체계 개편 정책의 공감대 형성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는 6.3일 대구삼성컨벤션센터 중앙컨벤션센터 2층 컨벤션 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새로운 모멘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과제를 치밀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시·도민의 더 많은 뜻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부 국회 자치단체 등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통합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통합과 같은 단대한 도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현재의 국가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며,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교통·문화가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과 지방정부로의 위상강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범정부적인 지원과 조속한 관련 법령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주문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일정규모의 초광역권역, 메가시티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영상매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시대정신이다.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광역시와 도가 분리됨으로써 광



역행정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해소방법으로 광역행정체제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계를 초월하는 특정한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연합안, 둘째, 시·도 통합안, 셋째, 3개의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2~3개의 시·도를 통합하는 조광역자치체 설치안, 넷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 등이다.

김위원장은 "초광역체제 대안들은 대안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재정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서는 하향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방지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대안이 제시되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합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최철영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의 의미는 국내최초로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용,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공약과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국·수도권 대비 지역총생산 격차 증가 해소책으로 2020년 9월 광주전남 통합 준비

단·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상 계획 및 행정통합, 경제통합, 완전통합, 부분통합 등 다양한 상황의 맞춤형 분석으로 광·전남형 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정책에 유연한 대응을 통한 성장전략,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정준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은 "부산·울산·경남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행방안으로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광역교통망 조성 등), 경제공동체 기반마련(물류, 에너지산업 등 혁신), 문화공동체 기반마련(엑스포, 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 등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위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것에 합의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강화, 광역 생활권 연결성 강화, 지역 문화권 정체성 강화를 3대 분야별 목표로 설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청권에 특화된 미래산업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계, 지역간연계체계구축, 스마트그린압축도시형성 등 초광역 연대사업, 광역협력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모

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진행한 2부 토론에서는 김영철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광역권의 통합과 협력이 규모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합대상 지역이 자치와 분권의 주체성을 확보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2장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기능중복기관의 통합 후 혼란 방지 방법, 경북지역 발전 방안, 국비확보 증가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통합과 분리의 정확한 B/C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비수도권의 권역별 성장을 유지 확대하려면 권역중심 대도시권을 형성해 권역내 중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역기능의 수행 범위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기능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설치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단위와 달리 광역단위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해관계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철저적 과정보다 지역 내부의 합의 도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중수 TBC 경북지사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행정수요 대비에 행정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별 세부 대책 수립,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전략 수립,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분권형 광역통합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이는 국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광역통합을 통해 자립적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정보공유를 통해 큰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경북의 향후 행보가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 김천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올해도 전면 취소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시민안전 최우선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천시는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이자 포도 특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김천 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4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5명(진, 선, 미, 새코미, 달코미)의 포도아가씨를 선발하여 김천 포도는 물론 각종 농특산물 홍보 행사 및 관내외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김천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도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지역제한이 경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선, 본선 행사 등으로 인해 자칫 지역 확산의 우려가 있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다.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위해 세워졌던 예산은 김천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 자두를 온라인 및 지상파로 홍보하여 김천의 브랜드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2년째 취소하고 있어 아쉽지만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득이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전하게 각종 행사 등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영주시,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과 치매극복을 선도하는 기관 양성을 위해 3곳을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정했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치매극복에 앞장서는 업소이다.

또한 '치매안심가맹점'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치매조기검진 권유와 치매극복 캠페인 참여하는 등 치매극복을 위한 실천도 수행하며, 치매 관련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상시 비치하는 등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치매안전망체계를 구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시는 이날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카페코코빙, 그린미용실, 이병이치킨 등 3곳을 지정했으며, 이후 지정되는 치매극복 실천 다짐과 함께 치매안심가맹점 현판과 치매파트너 증을 전달했다.

김인석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영주시 만들기'를 선도하는 개인 및 단체를 양성하고 발굴할 것이다."며, "일상에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문화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인지꾸러미 전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헤아림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김기현기자



# 경상북도 울진경찰서 정보계, 베스트 공공안녕정보팀 선정

울진경찰서 정보안보의사계가 3일 경상북도경찰청이 주관하는 정보경찰 활동 평가에서 2021년 2분기 베스트 공공안녕 정보팀으로 선정됐다.

베스트 공공안녕 정보팀은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정보관들의 사기를 위해 도경찰청에서 매분기 우수정보계를 선정,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울진경찰서 정보안보의사계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울

진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로 베스트 공공안녕 정보팀에 선정, 손예지 정보관은 우수정보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변종문 서장은 인증패를 전수하고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에도 대단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울진의 치안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기자



# 예천군 예천박물관, 10대 대표 소장 유물 책자 발간 및 영상 홍보



예천군은 예천박물관 관람객들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물관 10대 대표 유물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예천박물관은 보물 268점과 도지정 문화재 33점을 포함한 2만여점 유물을 확보해 국내 공립박물관 중 가장 많은 보물을 소장한 곳으로 특히 박물관을 대표하는 10건 유물은 희소·역사·예술성을 갖춘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10대 대표 유물은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본 사시찬요(15C초) △국내 가장 오래된 거문고 희령군 여사금(15C초) △국내 현전 가장 오래된 옥피리(1466) △영남 지역 대명리의 3대 상징물 중 하나인 유업배(16C) △우리나라 최초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1589) △국내 최고 목패 윤양신 목패(호패, 1626) △국내 최고 서양식 세계지도 만국전도(1661) △국내 최초 인물백과 사전 해동잡록(1670) △국내 최장기간 쓰여진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저상일월, 1834-1950) △국내 유일 킬로 이용해 만든 청단놀음 자연광대탈(근현

대)이다.

이에 예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선보이기 위해 10대 대표 소장유물 책자를 발간하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예천박물관 관계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우수한 문화자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경시 노인전문간호센터 '치료정원 프로그램' 운영

문경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입소자들의 면회 및 외출·외박금지 장기화에 따른 외로움이 날로 커지고 있어 시설내 '치료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단을 조성하였다.

간호센터 후문 잔디밭에 조성된 치료정원은 입소자들의 인지 자극 및 정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다채로운 4종의 꽃(페튜니아, 메리골드, 일일초, 임파첸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센터에서는 주2회 산책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소자들에게 일상속의 휴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물하여 기분전환은 물론 심리적인 치유도 기대하고 있다.

간호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인지 및 정서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입소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센터는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4회에 걸쳐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시설급여 판정자는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한반식기자





### 부산시 지역대학목소리를 듣는다! 첫 '오픈캠퍼스미팅' 개최

박형준 시장, 동의과학대학교를 시작으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 위해 직접 대학 현장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학 현장을 찾는다.

부산시는 6월 4일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첫 「오픈 캠퍼스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 캠퍼스 미팅은 박형준 시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지·산·학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박형준 시장이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 청년·대학생, 대학 및 기업체 관계자들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박형준 시장은 오픈 캠퍼스 미팅의 첫 주자로 동의과학대학교 방문한다. 동의과학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동의과학대학교에서 AI카페 개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지역 전문대학으로부터의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해, 현재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오픈 캠퍼스 미팅에서는 부산시·대학, 학생, 기업체 관계자가 7명씩 삼각형 모형을 마주 앉아 학생들과 산학협력 기업의 애로사항, 일

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 산학협력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인 다각형이라는 삼각형으로 앉아 토론을 하는 것은 지·산·학의 단단한 결속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학의 산학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부산에 계속 거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 남해군, 청년아이디어 지원 '도전에서 성공까지' 참가자 모집

남해군은 지역의 자원·공간·특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넘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로컬크리에이터까지 도모하기 위해 '2021 청년 아이디어 지원'사업 참가자를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 청년 아이디어 지원'사업의 명칭은 '도전에서 성공까지'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의적 지역 혁신가를 말한다.

아이템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활동비(제작비, 컨설팅비), 홍보디자인 개발(로고, 포장재 등), 행사개최비, 박람회참가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사업장 내 환경개선을 위한 재료구입이나 소규모 수선에 관한사항도 지원한다.

공모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청년(만 19~45세) 예비 창업자를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22. 3월까지 사업자 등

록이 가능하여야 하고, 초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3년 미만('18. 6. 3.이후 등록)인 사업자이다. 선정규모는 총 10개 사업 내외로 선정하며 사업 당 최대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분야는 △6차산업분야 - 지역농·특산물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지식창업 - 디자인,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등 △일반창업 - 식음료, 공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등으로 지역자원, 공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이면 참여 가능하다.

공모신청을 원하는 참가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남해군청 청년혁신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연주 청년혁신과장은 "남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특산물, 환경, 공간 등 다양한 지역가치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2021 남해군 청년아이디어 지원 '도전에서 성공까지'**

**모집기간** 2021. 6. 4.(금) ~ 6. 18.(금) [15일간]

**공모대상** 남해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 창업자  
\*연령 - 22. 3월까지 사업자등록 / 초기 - 창업 3년 이내

**지원규모** 10개 사업 내외 지원 / 자부담10%포함  
17개사업 최대 5,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남해군청 공고문의 신청서 및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활동비(제작비, 컨설팅비)  
- 홍보디자인 개발(로고, 포장재 등)  
- 행사개최비, 박람회(전시료) 참가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사업장 1회 환경개선을 위한 재료구입 소규모 수선에 관한 사항(예산의20%)

**문의전화** 055-860-3470

청년이 그린 청년친화도시 남해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름철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시간 변경

오는 14일부터 9시~19시 운영...금·토는 21시까지 야간운영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시간 변경 안내**

사천바다케이블카가 하계 기간 동안 운영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케이블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14.(월) ~ 8. 29.(일)**

월·목 / 일요일	금·토 /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간 9:00 ~ 19:00</li> <li>매표종료 1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간 9:00 ~ 21:00</li> <li>매표종료 20:00</li> </ul>

※ 상기 이용시간은 기상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평일(월·화·수·목요일과 일요일)의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 일찍 케이블카를 방문하는 고객들과 일몰시간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또, 야간운행을 하는 금·토요일과 공휴일은 21시까지로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매표는 각 운영시간 1시간 전에 마감되며, 강풍이나 낙뢰 등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조기 종료될 수 있

다. 변경된 운영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바다케이블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정 이사장은 "케이블카 운영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삼천포바다와 실안낙조의 아름다움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케이블카에 방문하셔서 천혜의 비경을 바라보며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최초 바다와 섬, 산을 잇는 케이블카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창선·삼천포대교'를 지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각산정류장 전망대에 오르면 전국 9대 일몰 중 하나인 '실안낙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강영훈기자

### 진주시, 근현대 문화인물 및 마을 기록화 용역 착수

진주시는 지난 3일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서 '근현대 문화인물 및 마을 기록화 사업'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시행하는 근현대 문화인물 및 마을 기록화 사업은 진주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했던 수많은 문화예술인 중 7명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를 대표하는 지수 승산마을과 진주역 이 전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천전동(구) 진주역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수 승산마을에 있는 옛 이수초등학교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 LG, GS, 효성 등의 창업자가 다닌 학교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천전동(구)진주역 주변은 1925년 진주역 개통과 함께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시설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주역 이전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사라지고 있는 근대 주거 공간의 역사성 회복

을 위해 우선 선정되었다.

진주시는 작고한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마을의 소중한 자료와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잊혀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확보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문화예술인과 마을을 선정하여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 성과를 직접 보여 주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앞선 사전 조사 결과, 우리 시에는 음악, 미술, 대중가요, 만화, 문학 등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물이 많았다"며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인물과 진주를 더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울산시 "2022 전국체전, 태율이·태산이와 함께 해요"

2022년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마스코트 명칭'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코트 명칭 선호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7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코트 명칭(안)은 스태울이 : 태산이 스태울이 : 대습이 스태울이 : 수피 스태울이 : 밤이 스태울이 : 대습이 등 5개안으로 '태율이 : 태산이'가 최다 선택을 받았다.

'태율이 : 태산이'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의 합성어로 2022년 전

국(장애인)체전 기간 울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홍보 마스코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마스코트 명칭 선호도 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2022년 전국체전에 대한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이 모두에게 희망과 재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선호도 조사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하여 145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 하동군, 1200년 전통의 하동녹차 세계에서 또 인정받다

1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하동녹차가 세계 맛 권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또다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재)하동녹차연구소(소장 오홍석)는 녹차연구소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하동녹차삼각티백(Green tea Pyramid teabag)과 K-Matcha(마차·말차)가 세계의 수많은 차(茶)를 제치고 국제식음료품질원이 개최한 '2021 Superior Taster Award'에서 차(茶)로는 국내 최초로 '우수한 맛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제식음료품질원(ITI,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은 2005년 벨기에 브리셀에 설립된 글로벌 식음료 품질 평가기관으로, 매년 세계 130개국에서 생산되는 식음료 제품을 분석해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올해는 유럽 15개국에서 선발된 200명 이상의 미각 전문가들이 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하동녹차삼각티백과 K-Matcha 맛에 대한 우수성을 인증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안전한 먹거

리 생산과 품질 유지를 위해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된 체계로 녹차의 품질을 관리해 다양한 글로벌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녹차연구소는 현재 SQF품질(HACCP)인증, 코셔인증(유대인 율법에 의한 정결한 음식), 돌나라유기인증(무농약 친환경 식품), UTZ인증(책임 있는 농산물 생산과 지역 환경·근로자의 근무환경 등 농가·가공공장·판매자가 인증받는 제도), 할랄인증(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식품)을 취득하고, USDA-NOP인증(미국유기생산규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녹차연구소는 이렇게 세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인증을 받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기업 스타벅스에 가루녹차 120t을 수출한 것을 비롯해 세계 13개국에 하동녹차를 수출하고 있다.

오홍석 소장은 "이번 우수 맛상 수상을 계기로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다시 한번 더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수출 루트를 다각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제8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전라북도가 3일 도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5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선행 부문에 송유경(전주솔네고, 만18세), ▲면학 부문에 양아현(연세대, 만19세), ▲예체능 부문에 김태연(동신초, 만9세), ▲국제화 부문에 조은빈(전북대, 만22세), ▲장애 부문에 김승철(장수산서중교, 만16세) 등 총 5명이다. 전체 6개 부문 중 효행 부문은 자격자가 없어 제외됐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후보자의 공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정도로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시상식에서 5개 부문 청소년상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꾸준한 성실함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기록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이름을 떨치는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선행 부문에 선정된 송유경 양은 중



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새누야 학교 영어수업 도움, 요양병원 봉사, 소아암 환우돕기행사 참여 등 300시간의 봉사활동과 특히, 솔네고 치매 극복봉사단 '바이오버디'를 만들어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로 치매예방 홍보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면학 부문 양아현 양은 다문화 가정 자녀로 어린시절 편견에 사로잡혀 방황하다 초등시절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계화에 눈을 뜨고 긍정적인 꿈을 가지면서 자기주도학습으로 남원여고를 수석으로 입학·졸업하고, 지리 올림피아드 금상, 수학 창의력 페스티벌 금상 등을 수상하였고, 지난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세계화, 다문화 교육, 국제화에 고

육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문화 가정 초등 자녀 학습 봉사, 멘토링·강연 교육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한 점이 인정됐다.

예체능 부문 김태연 양은 만4세에 판소리를 시작하여 대한민국 춘향극악대전에서 최연소 대상, 박동진 판소리 대회 대상, 진도 민요명창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고 미국 캐나다홀에서 국악 공연을 펼쳐 세계에 국악을 알렸다. TV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최종 4위에 오르며 트롯 신동으로도 유명세를 얻으며 지역을 홍보하고, 우수상금 기부활동 등 실적이 인정됐다.

국제화 부문 조은빈 양은 전북대 글로벌 프론티어 칼리지 부학생회장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여건

및 학업여건 개선을 주도하였다. 전북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해외대학 대표단을 대상으로 대학 및 지역홍보활동을 수행,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KOICA 프로젝트 봉사단(19.8~20.3)으로 선발되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활동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KOICA ODA 영프로세서널(인턴)로 근무(21.1~)하며 베트남 다락성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제교류 역량이 탁월했다.

장애 부문 김승철 군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아동 시기에는 폭력적이며 언어치료를 사들 사이에서도 힘든 아동으로 통할 정도였으나 반복된 학습으로 좋아져 장수 산서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특수학급만 실장을 맡아 책임감있게 급우들을 챙겼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등교해 선생님께 큰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학교에서도 교무실에 들러 인사를 하는 등 예의바른 모습을 보이는 등 장애를 극복하고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인정됐다.

한편,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4년 제1회 3개 부문 시상을 시작으로, 2015년 4개 부문, 2016년 5개 부문 등 매년 수상자를 선발하여 2021년 제8회까지 총 35명(효행 3, 선행 8, 면학 8, 예체능 8, 국제화 4, 장애 4)의 도내 청소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승일기자



##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 2년 동안 연간 200여톤 공급

###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 판로 확대 '척척'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국내 최고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에 이어 수도권 학교급식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명품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친환경 쌀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농가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탐마루 친환경 쌀을 오는 9월부터 2년 동안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연간 200여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21일 해당 급식의 친환경 쌀 공급 입찰에 참여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학교급식 현실조사팀이 탐마루 쌀 가공 경영체인 삼기농협에 방문해 시설·품질·위생관리·안전성 등 총 7개 항목을 2차(현장) 평가했다.

이어 지난 2일 실시된 3차 평가(품평회)에서 PPT 발표와 식미 테스트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1·2·3차 평가에서 모두 고득점을 획득함으로써 최종 노원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 5개소 안에 선정됐다.

앞서 시는 국내 최고 식품기업인 CJ에 지역 친환경 유기농 쌀 150여톤을 공급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박승수 미래농정국장은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 쌀 공급을 계기로 수도권의 다른 자치구에도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CJ 등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익산 친환경 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군산시 강임준 시장,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

3일 강임준 군산시장에 오는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지난달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방문에 이어 금번 기획재정부 방문은 2022년 국가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시 논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시 '22년 국가예산 중앙부처 반영 예산은 319건 9,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건 19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 성과를 거뒀고, 기재부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군산 근대사 전반에 영향을 준 선교역사관 근대 문화시설과 연계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한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총사업비 60억원)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 서군산 지역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총사업비 280억원)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는 2023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가 운영되면 다양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 균형발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24년까지 총 4,379억원의 재정이 적기에 투입되고, 전기차 24만대가 계획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 R&D 사업인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420억원)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군산 신설을 건의하고, 현재 전북 서부권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고객 불편 및 행정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산지역 산업·고용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고용 환경에 맞는 우수한 산업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군산지역 전북서부지사 기관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내년도 중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실무담당

부터 국장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쟁점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정치권 공조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국가예산은 9월 3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김현태기자



## 진안군 산림유관기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산림유관기관들은 2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운면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진안군 산림과,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진안군 산림조합 직원 등이 일손돕기를 시행하자고 합심해 진행됐으며, 각 기관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백운면 동창리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적과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과수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진안군 직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적과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용주 산림과장은 "영농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와중에 일손돕기에 참여해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충철·이희철기자

##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선정

남원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책임 징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세외수입 징수율,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사례 발표 등 7개 분야 10개 지표로 세외수입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남원시는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객체납자 채권 압류 및 변호관 영치 ▲세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 우수 수상 ▲채권관리지침 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도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맞춤·소통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히 세외수입 모바일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

이남철기자

## 2021 '완주 한 달 살기' 레지던시 시즌 1, 시작~!!

(재)완주문화재단의 2021 '완주 한 달 살기' 레지던시 사업에 총 8팀(12명) 중 시즌 1 프로젝트를 진행할 6명의 예술인이 마을에 입주를 시작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김명지, 이부성 작가는 화산의 에버팝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순협 작가는 고산의 아트스튜디오 입주했다. 관화와 드로잉으로 작업하는 한지민 작가는 용인의 아트커뮤니케이션 완산가, 미술영상기반작업 공동체로 활동하는 400부(이지윤, 박서우) 팀은 구이별마당으로 지난 5월 28일 모두 입주를 마쳤다.

2021 완주 한 달 살기 '시즌 1'은 5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3개월 가량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6인의 예술인들이 예술인의 눈으로, 마음으로 완주를 읽고, 해석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기



간 내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지역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작업활동을 공유하고, 교류도 진행한다.

9월부터 시작되는 '시즌 2'도 사진, 문학, 다원,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4팀(6인)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완

주탐사프로젝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21 완주 한 달 살기 레지던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재단now)와 재단SNS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 2021년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장흥지역의 전통 발효 떡차 청태전(돈차)의 인문학적 고찰, 계승과 복원제다 연구

장흥문화원은 (재)한국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에서 「장흥 지역의 전통 발효 떡차인 청태전(돈차)의 인문학적 고찰, 계승과 복원제다 연구」 사업에 4월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은 문화재단과 한국문화재단의 무형문화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장흥 지역의 대표 전통 발효 떡차인 청태전(돈차)을 주제로 강연과 현장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청태전보존연구회'와 함께 운영한다.

또한 청태전의 복원 계승을 통한 차 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의 청태전 제다·연구 관련 단체 및 일반인과의 연대 사업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성찰과 가치 확산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태전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즐겨 왔던 고유 발효차의 일종으로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전남 장흥 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전통 발효차의 이름이다.

청태전은 세계녹차콘테스트 최고 금상, 국내외 다수 차 품평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국제슬로푸드 생명다양성 재단이 인증한 맛의 방주에 등재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발효 명품차로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0일 1강을 시작으로 '청태전 차의 인문학적 고찰' '고영천(장흥문화원장)', 2강으로 '청태전 차 유산의 분포와 특성(장흥부 13다소 중심으로)' '이영민(전농업기술센터소장)', 3강으로 '청태전 차의 다례와 행다이론과 실제' '서남경(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장)', 4강으로 '청태전 차 다식이론과 실제' '김경자(마운다미원 원장)' 등 다양한 강의와 체험이 진행됐다.

5강으로는 장흥 옛 다소 및 장흥



티로드 현장체험 '김수희(제다명인)' 이 6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5월 9일부터 9월까지 총 20번의 강의와 체험으로 꾸며졌다.

고영천 장흥문화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문화

유산 발굴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이해하고, '문림의향' 고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문화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장흥문화원은 그동안 향토문화의 보존·전승·발굴에 앞장서 왔다.

김장길기자

## 광양매실로 빛은술, 남도 전통주 최고 명성 인정

(주)백운주가 '2021 남도 전통주 품평회' 3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남도 대표 술 품평회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주)백운주는 '백운산 기슭의 맑은 물로 빛은 술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한 쌀, 매실, 복분자 등을 이용해 저온 장기 발효공법으로 13여종의 전통주를 생산하는 대표 전통주 제조업체이다.

'매실막걸리'는 광양에서 생산한 최고 품질의 매실 과즙과 쌀, 소맥을 주원료로 저온 장기 발효해 빛은막걸리로, 매실의 향취를 최대한 살리면서 부드러운 탁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백운대나무술'은 대나무 특유의 그윽한 향과 가볍고 시원한 목 넘김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백운복분자주'는 광양에서 재배한 복분자를 저온 숙성해 복분자 본연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난 제품으로 매년 주류품평회를 석권하는 명

품 전통주다.

백운주에서 생산한 명품술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전남 전통주를 대표해 출품되며, 라이브장터와 국내외 식품 박람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시에서도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전남교육청, 제26회 환경의 날 맞아 환경교육 영상 제작

학교 생태환경교육 강화 위한 수업 지원 자료로 활용

전라남도교육청이 제26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천운동' 영상을 제작해 6월 3일부터 유튜브에 탑재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영상을 기후위기 속 전남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학교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수업지원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8분 15초 길이의 이 영상에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류위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활동, 친환경생태학교(목포북교초등학교) 환경교육과 학생활동,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운동 등이 담겨 있다.

촬영에 참여한 목포북교초등학교 안남우 학생은 "도룡뇽을 만져보고 꽃과 나무를 보는 수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안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에코트리 캠페인을 하면서 환경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도 돕겠다"고 실천의지를 나타냈다.

장성웅 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전남 학생들에게 환경의 날과 탄소중립의 의미를 알리고, "환경의 날을 계기로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특히, "지구 살리기!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운동을 강조했다. 이 영상은 전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 학생, 교직원, 지역민 대상 환경사랑퀴즈,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학부모 연합회 환경보호 캠페인, 환경지킴이 릴레이 캠페인, "바.나.나" 운동, 환경지킴이 캠페인 등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김영안기자

## 진도군, 보고 만지고 느끼고 숲에서 맘껏 뛰어 놀아요

12월까지 무료...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발'

진도군이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산림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 창의성과 사회성, 자연의 소중함 등을 배울 수 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계절·주제별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숲 해설 등 단계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산림교육장은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놀이시설, 통나무 놀이시설 등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뛰어 놀기 최적의 장소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이 숲에서 즐

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진도군은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김양호기자



## 고창군 천변길 여름맞이 화사한 꽃잔치 한창

여름의 시작. 고창 천변길에 봄을 가득 채웠던 노란 꽃밭들이 물러나고 연분홍 웨이브 페츨리아가 화사하게 만개해 싱그러움 여름을 환하게 맞이하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 천변을 비롯한 고창IC 진입로 등 4개소 1193m구간에 난간화분 2865개를 설치했다.

특히 고창 천변에 심어진 페츨리아는 밤에도 주변 상가 불빛과 어우러져 천변을 산책하는 군민들에게 은은한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또 고창 천변에 조성된 난간 화분은 효율적인 급수 작업이 가능한 타이머 자동 관수시설을 겸비했다. 수시로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물을 좋아하는 페츨리아의 특성에 맞아 최상의 상태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됐다.

나폴거리는 꽃잎이 화려한 듯하면서도 순박해 보여 오랫동안 바라보아도 지루하지 않아 매년 군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밖에 고창의 첫 관문인 고창IC 진입로에도 가로등걸이 페츨리아 화분 12개를 설치해 고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김현태기자

#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참가인정	5	없음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 강릉시, 온라인 타고 글로벌 관광시장 집중공략 나서

## 각종 테마별 영상 업로드하여 시 홍보

강릉시가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테마별 영상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잠재관광객 선점에 나선다.

현재 지난 4월과 5월 각각 한편씩 2편의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제3, 4편이 제작 준비 중이다. 제1편은 피겨코치이자 유명 유튜버인 '백수박'과 협업하여 제작한 것으로,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이미지를 활용, 바다와 호수 배경으로 한 인라인스케이팅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지 한 달 만에 3만5천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제2편은 국제영화제 개최도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색깔과 동화 같은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 모티브의 홍보영상으로, 유튜버 채널 '이퀼리'를 통해 총 4개 국어(한, 영, 중, 일)의 자막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3편은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354채널'과 제휴하여 유명 외국인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 럭키가 출연한 가운데 강릉의 바우길 트레킹과 해변승마,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예능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K-POP 도시 컨셉의 제4편은 K-POP,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관광지 강릉'의 이미지를 이어갈 댄스 퍼포먼스 영상으로, 유튜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댄스 크루와 협업하여 제작, 6월 중 유튜버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잠재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본격 진행한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커뮤니티인 '마펑위코리아'와 손잡고 재한 중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랜선 팸투어를 진행, 마펑위 플랫폼에 최신 강릉여행 트렌드를 생



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마펑위 앱은 20년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7억 6천만 회, 전 세계 여행지 6만여 개 소개 및 1억 3천만 명의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여행객이 해외여행 일정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참고하는 채널로 알려져 있다.

강근선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

황에서 강릉시 관광사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관광 홍보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잠재 관광객에게도 우리 시의 매력과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테마의 영상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횡성군,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비대면 산림 체험 키트 제공

횡성군은 4일,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국립횡성숲체원에서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대면 산림체험 키트를 신청하였다.

군은 지난 해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칙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 지원 등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우울의 사전 예방을 위해 비대면 산림 체험 키트 지원을 신청 하였다.

해당 산림체험 키트는 '깨끗한 여름 만들기'라는 제목의 셀프 비누 만들기 키트이다. 제공 대상은 523명의 횡성군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이었으나, 이 중 약 200여명이 본인이 사용하는 대신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격리자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지원 대상이 자가격리자로도 확대되었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키

트 제공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무원과 자가격리자의 심리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트를 제공해 준 국립횡성숲체원에 감사드리며, 이용자들이 체험 키트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나만의 춘천, 사진으로 "찰각, 찰각"

## 춘천 자연경관, 관광명소, 문화자원 소재로 사진 공모전 개최



제15회 춘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춘천시정부는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을 소재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춘천 시내의 비경 ▲춘천 8경과 비경 8선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춘천을 배경으로 한 가족사진 및 야경 ▲새로운 관광트렌드 등 5개 분야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 공모 분야를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수나 걷기길

등 비대면 관광지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공모 분야를 새롭게 만들었다.

호수 등 비대면 관광지나 삼악산 로프웨이, 레고랜드 등 춘천의 신규 관광지를 사진에 담으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다만, 제출 사진의 촬영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다.

시정부는 11월 중 심사 및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금상 1명, 은상 2명, 특별상 2명, 동상 3명, 가작 5명, 입

선 68명 등 총 81명이다.

수상작은 시정부 홍보 및 행사자료, 관광지 전시, 공익광고 및 공익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철호 관광과장은 "춘천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여러 작품들이 출품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사진 동호인과 사진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제14회 춘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는 323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43명이 수상했다.

최재은/기자

# 강원도 고성군,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강원도 고성군은 2021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올해 고성군의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한발 앞선 대응 및 홍보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구축 및 대비 기간을 가졌다.

고성군은 물놀이 관리지역인 해수욕장, 유원지, 하천 등 31개소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훼손정도가 심한 안전시설은 폐기, 사용가능 시설은 물놀이객 및 안전요원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재배치하고,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은 출입통제 및 접근금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물놀이 위험구역 및 안전사각지대에 경고 표지판과 표표를 설치하는 등 6월 25일까지 안전사고 우려지역의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

자제, 2m이상 거리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이용객 응대시 마스크 착용, 공용사용 물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비상체제기간 동안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행동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추진상황 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정지, 군 홈페이지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 안전한 물놀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각종 축제 행사시 "물놀이 사고 예방캠페인"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물놀이 홍보내용을 수시로 방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

놀이 중 확진자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도 물놀이 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다이빙 금지, 음주 후 수영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물놀이와 야외 휴식 중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에도 안전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양양군은 중소기업벤처기부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5억8천만 원을 투입,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 4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4일 준공했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은 183KW으로, 30KW는 공영주차장 자체전력으로 사용하고, 153KW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판매할 예정으로, 연간 24백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친환경발전시설의 수요를 촉진하여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관공서가 앞장서기 위한 것으로 녹색에너지로 살기



좋은 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발전으로 생긴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유지 관리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공공건물 자체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하나의 녹색빌딩이 되는 셈이다."며 "우선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적용,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1년 6월 3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강원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강원도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강원도정 김중곤 사회경제특별보좌관이 함께 자리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강익 센터장은 "강원도내에 보

호종료아동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일 경험을 지원하여 업무 경험을 쌓고,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 925명과 보호종료아동 640명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동희/기자

# 홍천군, 힘내Go! 도시락 릴레이, 아카이브 책 발간



홍천군은 신장대리 일원 소규모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힘내Go! 도시락 릴레이'가 책으로 발간된다. '힘내Go! 도시락 릴레이'는 주민 간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열린 소통구조를 만들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됐다.

이 사업은 상인에서 주민으로, 다시 주민에서 상인으로 700여개의 도시락이 전달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우울하던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신선한 활력소가 됐다.

책은 6월 초순 발행될 예정이며, 홍천군 내 관공서와 도서관, '힘내Go! 도시락 릴레이'에 참여한 주민과 상인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힘내Go! 도시락 릴레이 아카이브 책은 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 및 상권회복을 위한 노력과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담긴 책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대전광역시, 온통세일 대박났네! 5월 한달 2,100억 원 발행



대전광역시가 온통대전 발행 1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달간 개최한 '온통대전 1주년 기념 온통세일'이 5월 31일부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소비촉진 붐을 조성하기 위한 온통세일은 구매한다 100만 원 확대와 최대 15% 캐시백 지급 등 다양하고 풍성한 소비진작행사와 할인·경품 이벤트 등이 대전 전 지역에서 진행됐다.

온통세일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발행액이 전월대비 70% 대폭 증가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통세일 첫날인 5월 1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온통대전에 신규 가입하고 하루 만에 온통

대전 역대 최대금액인 250억 원이 발행되는 등 지난해 온통세일 첫날 180억 원의 최대 기록을 뛰어넘는 새로운 온통대전의 발행 역사를 기록했다.

온통대전은 5월 한달 동안 2천 1백억 원이 발행됐고 2천여 명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소비했으며, 4만 3천여 개의 신규카드가 발급되고 앱 가입자는 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온통세일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5월 발행액이 증가한 것은 구매한다 100만원 상향과 최대 15% 캐시백 확대가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진행된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도 지역별 소비유치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 총 누적 발행액 8,000억 원 육박, 카드발급 86만 돌파

나타났다.

또한, 중앙도매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11개소에서 온통대전 15% 캐시백을 포함해 최대 25%의 자체 할인혜택을 실시해 고객 증가 및 매출 상승에 큰 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온통세일 대박 라이브커머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촉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기회였다.

5일간 '온통대전' 유튜브 채널에서 온통대전몰의 지역우수판매상품 20여개를 실시간으로 판매한 라이브 커머스는 총 5시간 동안 누적 약 3천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단시간에 2백여 명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몰인 온통대전몰과 온통배달 플랫폼에서도 뜨거운 반응과 함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30% 할인쿠폰 및 1만원 적립금 등 파격적인 소비촉진 이벤트를 준비한 온통대전몰은 5월 한달 동안 5천여 명이 신규 가입하고 매출액이 8천만 원을 기록해 누적금액 4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은 신규 가입정수가 1천여 개소 증가하고 1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중앙시장을 비롯해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무료배송 이벤트'도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과 고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온통세일 상생·협력이벤트를 추진해 온통세일 특수를 보였고 재구매 고객수의 증가 등 매출증가의 효과를 보였다.

온통세일의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공유한 '온정나눔 감사 이벤트'는 5월 14일부터 1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월 대비 약 50% 증가한 200여 건에 2백여만 원이 모금되어 다함께 잘사는 지역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 1주년을 기념한 온통세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과 소상공인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다"를이라며 "상반기 온통세일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내실있는 하반기 온통세일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온통대전이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국·시비 추가 확보 및 월 발행규모 조정 등 수요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주시, '고마곰과 공주'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공주시의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우리동네 캐릭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3일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역·공공캐릭터 대상 역대 수상 경력에 있는 40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에서 공주시의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가 최종 선정돼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공주시의 역사와 캐릭터를 활용한 출산 축하선물 동화책 개발'이라는 기획안을 제출, 콘텐츠 기획과 캐릭터 관리 부문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계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공하는 홍보마케팅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경규 시민소통담당관은 "공주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공주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018년 특별상, 2019년 우수상, 2020년 전문가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지자체 캐릭터 부문 강자로 성장했다.

한편, '고마곰과 공주' 마스코트는 지역실현인 고마곰 설화와 무령왕의 유물, 공산성 등 지역문화유산을 재해석해 2015년 1월 탄생했으며, 공주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 SNS 등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김원호기자

##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청년과 함께 만든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도는 4일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기 청년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청년특별위원회의 첫 출범을 알렸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도의 청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국내외 청년사회 사례 비교·분석,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제언, 도내 청년 관계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한 청년특별위원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5명이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원활한 정책 방향성 정립 및 추진을 위해 청년부와 대학부로 분과를 구성했다.

도는 이번 청년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2030 미래 세대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

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청년특별위원회와 함께 청년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형성해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위촉식은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했다.

위촉식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청년특별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우성 문화체육복지사가 청년특별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이날 청년특별위원들은 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의견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 도정 각 분야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 및 모색을 위한 '청년특위 토크쇼'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청년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청주시,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주민의견 수렴

청주시가 가경동 1694번지에 위치한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당초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공원조성과에 설계(안)를 비치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계(안)에는 경사면을 이용한 미끄럼틀, 네트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 운동기구와 포장 교체, 휴게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이다.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된 설계(안)를 확인한 후 의견을 우선 또는 서면(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

다.

공사는 오는 7월에 착공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없게 됐음을 이해해 달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공원조성과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가원학교, 대전해든학교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3월 개교하여 대전 서부권 특수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과밀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전해든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한 신설학교로 대덕구에 위치하여 북부권 특수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통한 등·하교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학교가 적어서 모든 학생을 수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신설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구분한 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학교 현안사항 및 실질적 지원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애로사항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과밀해결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박정현 대덕구청장, '세계 환경의 날' 기념 메시지 발표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를 기념하며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정장은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에 관심을 갖고 지구를 살리는 행동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고 징후가 선행한다고 한다. 박 정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폭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재해들은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하는 1번의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기후재해에 선행하는 작은 재해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인류 최대의 과제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쏟아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올라가면, 지금과 같은 일상은 불가능해진다.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의미하는 '세계 환경위기시계'가 가리킨 최근 시각은 9시 47분이다. 생존가능성을 의미하는 12시부터 겨우 두 시간 남짓 남은 시각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박 정장은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기후 진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전기코드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보관함에 저장된 이메일을 지우고, 불필요한 포장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채식 비중을 늘리는 일상 속 저탄소 기후행동들을 실천해 가는 '탄소 다이어터'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박 정장은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을 이루듯이 탄소중립 사회는 우리의 작은 기후행동들이 만날 때 도래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고 지구의 숨통을 다시 트이는 생활실천 기후활동가 '탄소 다이어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세계 환경의 날 기념 메시지 전문.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에 관심을 갖고 지구를 살리는 행동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고 징후가 선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폭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재해들은 아마도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하는 1번의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기후재해에 선행하는 작은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쏟아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올라가면, 지금과 같은 일상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의미하는 '세계 환경위기시계'가 가리킨 최근 시각은 9시 47분입니다. 생존가능성을 의미하는 12시부터 겨우 두 시간 남짓한 시각입니다. 남은 두 시간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기후 진화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전기코드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보관함에 저장된 이메일을 지우고 불필요한 포장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채식 비중을 늘리는 일상 속 저탄소 기후행동들을 실천해 가는 이들을 '탄소 다이어터'라고 합니다.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을 이루듯이 탄소중립 사회는 우리의 작은 기후행동들이 만날 때 도래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고 지구의 숨통을 다시 트이는 생활실천 기후활동가 '탄소 다이어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최만식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 보훈단체장과 간담회

윤화섭 안산시장은 4일 호국보훈의 달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관내 11개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헌신에 감사사를 전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오는 현충일에 앞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께 위로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충일 당일인 오는 6일 원곡공원 현충탑에서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제66회 현충일 참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식 추념식 대신 소규모 약식 참배로 진행하며 나라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에게 호국보훈의 달 표창장은 별도 전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6·25전쟁 기념행사는 취소됐으나, 6·25참전유공자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어르신들께 후원품을 연계해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귀한 헌신을 잊지 않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7년부터 7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238㎡ 규모의 보훈회관

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 8월 개관 예정인 신축 안산시 보훈회관 개관을 계기로 애국역사 계승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무/기자

# 대전 육군 군수사령관에 박양동 중장 취임

육군군수사령부는 3일 오후, 사령부 대강당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8·39대 군수사령관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인접 부대 지휘관 및 지역 기관장 등 외부 인사 초청없이 부대 관계자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39대 군수사령관으로 취임한 박양동 중장(56세, 학군 26기)은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제39보병사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장, 제6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양동 사령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빈틈없는 전군 군수지원 및 미래 군수혁신 과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육군을 선도하고, 사람이 최고가 되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임한 황대일 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정화/기자



#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풍호 상임회장, 경기도 환경대상 대상 수상 영예

기후대기분야에서 20여 년간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풍호 상임회장이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의 경기환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이풍호 상임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탄소발자국줄이기, 기후변화포럼, 생물다양성탐사, 기후대학교 등 기후변화대응 실천 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풍호 상임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푸른환경운동 경기남본부가 의왕시 하천·호수 일대 환경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물관리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원준규/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현안사업 건의,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안의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발품뿔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먼저 6월 2일, 부안출신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과 박선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군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했고, 국토위원장이던 진선미 의원을 만나 부안의 최대 현안인 『부안~고창을 잇는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과 『국도 30호선(서포~운호) 구간 확·포장공사』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력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6월 3일에는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예산총괄심의관, 지역예산

과,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며 부안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분주한 일정을 마쳤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비롯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하여 국제 행사의 성공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해 서해안의 핵심 지역인 부안의 도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들에 대한 추진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문을 두드리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당진시, 당차게 살아가는 '당진시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 당찬 사람들 '청년편', 실패와 극복사례 미니다큐로 제작



당진시가 평범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소신과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을 선정하는 '당찬 사람들'이 올해는 '청년편'으로 특별제작 된다. '당찬 사람들'은 2016년 제1호 야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지역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 공감을 이끌어 낼 예정이며, 청년사업가로서의 고충과 실패사례,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미니 다큐형식으로 제작한다고 전했다.

올해의 당찬 사람들로 최종 선정된 사람은 ▲팔기농가 우민재 대표 ▲당진형 와인제작 이강권 대표 ▲청년 농업인 손주현 씨 ▲한다리새우 양식업 장동현 씨 ▲심리상담가 문정우 씨 ▲파프리카 김치 등 이우식 제작 이우경 대표 ▲'떡을 파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정은 대표까지 모두 7명이다.

시는 올해 선정된 당찬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미니 다큐영상으로 제작해 이번 달 7일 당진시청 유튜브를 통해 민인상회 이정은 대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 청송군,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청송군이 최근 '2021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 효율을 통해 에너지 절약 성과를 높이고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수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청송군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낮은 사업성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을 완료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연료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편리한 가스사용 보편화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에너지와 친환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참여하고 주축이 되는 정책을 펼쳐 친환경도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상식이 최소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상식은 불참하고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지난 6월 2일 상장 및 상패를 전달 받았다. 김세기/기자



# 의령군, 강원덕 체육회장 1일 명예군수 체험

의령군은 지난 3일 강원덕 군 체육회장을 제2대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 관계를 구축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에 '1일 명예군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2021년 군정 추진방향을 파악하는 등 주요 군정을 살폈다. 오후에는 의병문화체육과 건립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계획을 청취했다. 특히, 일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결재권을 부여해 직접 결재했다.

강 명예군수는 “짧은 시간이나마 군정 각 분야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덕 의령군체육회장은 지난해 첫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되어 의령의 체육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의령군 체육의 위상을 높여 체육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오태알 군수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 협조를 통해 군정발전을 극대화

하는 한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달부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 여론수렴을 위해 매주 한 번씩 명예군수를 선정해 하루 동안 군수직을 수행토록 하는 1일 명예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우당대상' 수상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우당대상 수여식에서 우당대상을 수상하였다.

경북대 설립자 전재욱 박사의 호를 따서 제정한 우당대상은 교육 발전 및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한 학교 관계자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경북대 최고의 상으로 매년 개교기념일에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철영 의장은 경북대학교 복지행

정과 졸업하였으며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우당대상을 수상한 이철영 의장은 모교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더 진력하고 학교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장흥군 용산면 김준희 군, 스페인 국제 기타 콩쿨 대회 우승

장흥군 용산면 차동마을 출신의 김준희(17세) 군이 지난 5월 30일 스페인 국제 클래식 기타 콩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클래식 기타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스페인 빌바오의 왕립 음악원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김준희 군은 국제 기타콩쿨 Ⅲ파트(고등학생부)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 냈다.

김준희 군은 지난 3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코스타리카 국제청소년 기타콩쿨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클래식 기타 연주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용산면 차동마을 출신의 김준희 군은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장흥으로 귀농한 김병순·한수정 부부의 신념에 따라 흠스쿨링을 통해 공부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클래식 기타를 접한 이후 국내외 교수진의 지도를 받아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 군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장길/기자





# 서울도서관, 시민참여형 위원회 구성... 도서관 서비스에 시민요구 담는다

## 연중 매월 첫째 월요일 온라인 공론장 개최하여 시민이 발제하고 사서와 함께 토론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위원회 제도 혁신에 따라 시민 공모로 도서관 위원회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는 공모로 선정된 시민 6명과 교육, ICT, 공간 등 분야 전문가 5명으로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위원은 김미경(용산구), 오윤영(성북구, 강동구), 임무영(마포구), 조진영(영등포구), 최준식(은평구, 종로구), 황혜진(관악구)으로 서울시 위원회 제도 혁신에 따라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모로 선정되었다.

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이동훈 교수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국가차원의 심리지원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는 시민위원 외에도 미디어 및 ICT 연구자인 최홍규(EBS 연구위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한주리, 소셜임팩트 기업 플랜엠과 한국사회기치평가 대표 김기룡 등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도서관은 그간의 형식적인 위원회 모델에서 한발 나아가 일상적으로 도서관 외부의 의견을 듣는, 시민과 고객을 대변하는 구조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네트워크 위원들이 모여 도서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총 13개의 의제를 제안하고 1년 동안 논의 할 의제 최종 7개를 선정하였다.

2021년 1년 동안 다룬 의제는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전염병의 시대, 개인의 심리지원(이동훈),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조진영 제안, 송해덕 발제),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 청년을 위한 도서관은 없다?(최준식), 노인인력 활용한 도서관 역할강화 및 서비스 제고(오윤영), 정보플랫폼으로서 서울도서관의 역할 모색(최홍규),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원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오윤영), 도서관 공간과 제3의 공간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공간의 확장(김기룡)이다.

의제는 제안한 시민위원이 직접 발제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발제하고 시민들과 25개 자치구 도서관 사서들이 함께 논의를 한다.

오는 6월7일을 두 번째로 매월 첫째 월요일 온라인 작은 공론장을 개최하여 시민위원회가 제안하고 시민과 사서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

는다.

6월7일 온라인 공론장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시민위원 조진영이 제안,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송해덕 교수가 발제를 한다.

송해덕 교수는 EBS 교육대토론, K-MOOC 미래교육 디자인 등 미래교육 연구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역량 관련 연구 등 인적자원개발분야 전문가이다.

매월 열리는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함께 만드는 도서관 From Citize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10일 첫 번째 공론장 '코로나 19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지원'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연중 논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실천사례를 기록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일상은 미세하고도 큰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도서관 서비스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현유주기자



## 예산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축소 개최

###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예산군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6일 대술면 시산리 총령사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축소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축소 추진된다.

참석대상은 관내 보훈 단체장, 유족대표 및 주요 기관장 등 약 100명으로 최소화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모든 군민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 묵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충일 당일 10시 정각에 묵념 사이렌을 울리는 등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게 할 계획이

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사 규모는 축소하지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는 마음의 크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사회적 예우 증진 및 범국민 보훈 정신 함양을 위해 흥성서부보훈지청과 함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인 '명예드림' 릴레이 행사를 오는 7일 장명희 전통군경유족회 예산군지회장 자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 경북의 밤을 '잠명'하다, '자면서 듣는, 슬립콘서트' 개최

### 국립백두대간수목원(6.5), 사명대사공원(6.12), 병산서원(6.19.)

경북도는 경북의 밤을 '잠명'하며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인 '자면서 듣는, 슬립콘서트'가 오는 5일(국립백두대간수목원), 12일(김천 사명대사공원), 19일(안동 병산서원)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고 밝혔다.

'불명, 물명, 바람명, 숲명, 바다명, 잠명...' SNS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의 대명사가 된 '명'유행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무위(無爲)'의 미학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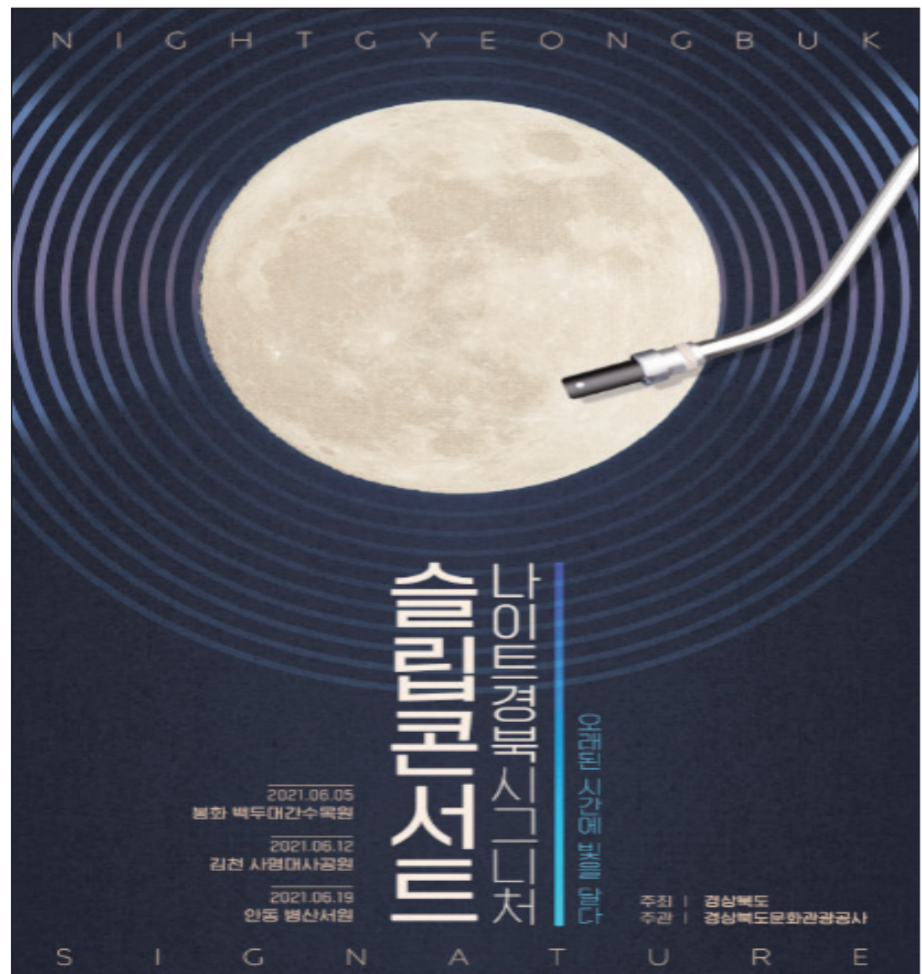
고즈넉한 여유와 쉼을 통해 진정한 경북의 밤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자면서 듣는, 슬립콘서트(sleep concert)'는 경북의 밤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별이 보이는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해 보는 힐링·치유 중심 야간 체험 프로그램으로,

담백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안동 병산서원, 평화의 탑을 중심으로 이미 야간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김천 사명대사공원, 천혜의 자연 속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목원인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총 3곳의 경북 대표 관광지에서 장소별 2회씩 총 6회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나이트경북시그니처'는 3대 문화권 인프라를 비롯한 도내 주요 관광지가 지닌 강점인 청정 자연, 언택트 입지 등을 활용하여 자연이 주는 담담한 감동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경북 3대 문화 야간관광 브랜드로, 3대 문화권의 밤을 밝히는 야간 미디어아트(예천 하트시그널, 안동 고-릴라, 김천 밤편지)와 경북의 밤을 체험하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슬립콘서트, 경주뮤지엄나이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경북의 밤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나이트경북시그니처'를 통해서 경북의 자연과 그 중심에 구축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 한다"며, "6월부터 8월까지 3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채로운 야간의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대전시립교향악단, '마티네 콘서트 2 공연

###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힐링의 시간

대전시립교향악단은 6월 10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마티네 콘서트 2를 연주한다.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를 선곡하여 재미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힐링 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이번 연주는 고전과 낭만, 현대를 아우르며 시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지휘자 진술의 객원지휘와 어린이와 대중을 위한 발레 음악극에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조예선의 목소리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병사의 이야기'는 스위스 시인이자 작가인 라뤼의 대본에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한 곡으로, 악마와 거래한 병사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러와 함께 7명의 악기 연주자들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음악극으로 전개된다. '병사의 이야기'작곡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에 많은 인력과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으로 공연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했다. 그 때문인지 전에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했던 '불의 제전'과 같은 특대 규모의 관현악곡에 비해 구성원인이 많이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연주는 오케스트라의 주 구성 파트의 대표적인 7개의 악기만을 주르러낸 바이올린, 더블베이스, 클라

리넷, 바순, 트럼펫, 트롬본, 팀파니, 그리고 스토리텔러의 목소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으로 무대를 준비해 각 장면의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한층 더 세심한 표현으로 스토리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연주를 기대할 수 있다.

'병사의 이야기'는 1막에서 휴가를 나온 한 병사가 악마와 거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악마의 핍에 빠져 그의 집에서 3일을 보내고 나왔다. 실제로는 3년의 시간이 지나 갔고 그로인해 막대한 부를 얻는 대신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2막에서 병사는 다른 나라로 떠나 그곳의 공주와 결혼할 기회를 얻게 되고 악마의 손아귀에 벗어나 그를 물리치게 되지만 국경을 넘기만 하면 다시 붙잡아 가겠다는 악마의 저주를 무시하고 물레 국경을 넘어 그에게 끌려가고 만다.

'병사의 이야기'의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물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 그리고 그 음악에서 얻는 감동으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고정화기자

## 경상남도, "하나뿐인 지구,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하동세계차(茶)엑스포 만들래요!"

### 재생 용지를 이용한 첫 홍보물 제작, 녹색 회복을 위해 작지만 실천 하는 모습 보여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가) 친환경 재생 용지를 이용한 첫 번째 홍보물을 선보이면서 홍보와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조직위는 재생용지 특유의 바탕색에 어울리는 '차를 따는 농부'와 '정금차밭' 등 하동의 주요 다원을 수채화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작함으로써 하동세계차엑스포만의 친환경적이고 색다른 느낌의 홍보물을 선보였다.

조직위는 더 저렴하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일반 용지를 선택하지 않고, 탄소제로 엑스포 실현의 의지를 담아 1만 여장의 홍보물 용지를 재생지로 선택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탄소제로 엑스포'를 7대 핵심과제로 선택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엑스포 성공 여부의 중요한 요소를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엑스포 실현에 두었다.

코로나 이전의 모든 행사는 흥행의 성공 여부만이 중요했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제는 대규모 환경과정을 유발하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엑스포 개최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달 30~31일 개최된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코로나와 기후 위기가 탄소 중립을 통한 녹색 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차 재배와 스마트 차 생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 할 계획이며,

또한 엑스포회장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구성하고, 엑스포장 내 다회기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전개, 탄소 발자국 계산기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차 교육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환경 교육도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2050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제로 엑스포의 신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고자 관계 기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신장열 사무처장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추어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최초의 그린 엑스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하나뿐인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엑스포의 흥행과 더불어 환경도 지키는 녹색 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4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문화축제장을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관람객 13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계약 300억 원, 농특산물 판매 50억 이상의 실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광웅기자





# 국제 곡물가격 상승...사료·식품 원료구매 금리0.2%p추가인하

## 업계 요청시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 통해 최우선 처리

정부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해 국내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백신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긴급 통관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들 업체의 금리는 2.5~3.0%였는데 지난 4월 0.5%포인트 낮춰 2.0~2.5%가 적용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금리가 1.8~2.3%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료업체는 500억원, 식품업체는 1440억원까지 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계청은 국제곡물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통해 최우선 처리해줄기로 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차량용 반도체, AI에 따른 수입계란 등에 한해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곡물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을 확보한 팬오션과 농협사료간 사료용 곡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3~5월 중 19만 7000톤의 사료용 곡물이 이를 통해 국내에 공급됐다. 팬오션은 10월까지 27만톤을 농협사료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밀 6만 8000톤을 국내에 공급한 바 있다.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 관세를 0%로 하는 긴급할당관세 적용도 연말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상향하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 관련 동향 점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 내 '국제곡물 수급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방안 등이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세종시, "비대면으로 취업한다" 구인구직만남의 날

## 10일 화상면접으로 구인애로기업, 병역지정업체 등 9곳 38명 채용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일 소담동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비대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7일까지 구직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행사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 등 구인애로기업 5곳과 병역지정업체 4곳의 실질적인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참여기업은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신제약, 제일폴리켐, ㈜에치엔지 등 기업 9곳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설계·관리직 총 3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제일폴리켐, 새롬테크, 코스모아이엔디, 아이모시스템 등 4곳은 대전충남병무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문제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화상면접의 경우 기업 면접관은 각 기업 내 사무실에서, 구직자는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화상회의장에서 노트북과 웹캠을 활용해 온라인 화상면접시스템에 접속해 진

행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별 면접인원을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서류전형에서 통과한 구직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채용에서 뽑히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도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취업 앞선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중선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기업의 구인수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구직자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부산시 4차 산업혁명시대, 최첨단해양방산 기술의 현재와 미래

# 백스코에서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성황리에 개최 예정

부산시는 대한민국해군,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최로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높은 위상과 국내외 해양·방위 산업의 최첨단 장비 및 신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마텍스, 시포트] (MARINE WEEK 2021 (MADEX, SEA-PORT))」를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해운대 BEXCO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격년제 홀수년도에 열렸던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전시회는 관련 전시회와의 일정충복 및 임대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국제 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은 6월에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은 10월에 개최한다. 그 결과 6월 전시회는 참가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행사는 코로나19로 해외에서는 관련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국 120개사 450부스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해외 28개국 80명에 이르는 각국 해군 사령관 및 대표 장성, 주한 무관, 국방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하여 참가국 간의 활발한 군사 외교와 국내 수출 추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합정건조 관련 대표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대형홍보관을 마련하여, 한국형차기 구축함(KDDX)사업에 대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국내를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LIG넥스원, 한화그룹(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풍산을 비롯 Lockheed Martin, Raytheon, GE, Safran, Rolls-Royce, Babcock Int'l, UK Defence & Security Exports 등의 해외 대표 방산기업이 참가함으로써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월 11일에는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호국음악회를 개최하고, 백스코 광장에서는 매일 해군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군에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민 응원비행과 개막식 축하비행을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관련 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불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부산시에서도 기업이 조기에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본 전시회 개막식은 오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각계 유명인사 등 1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백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코로나19를 대비해 입장객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체온검사, 손소독기 및 전신 소독기 통과 등 세분화된 입장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행사장 내 식음금지, 정기적인 공기청정기 작동 등 철저한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경영/기자

# 전북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시동

##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추진...올 연말 확정

전라북도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3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해수나 머드, 해조류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질환의 관리·예방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벨 확산에 맞춰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20.1.15.)을 발표하고,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을 제정(21.2.19.)한 바 있다.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며 관련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인 해양치유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방향, ▲ 해양치유산업 여건과 성장잠재력 분석 및 사업화 추진전

략, ▲ 해양치유산업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 ▲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새로운 동력 및 국가 예산 지원의 기회를 확보해, 향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센터 유치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으로 밝혔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신산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 광주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최대 90%, 일일 최대 6만6000원~7만원)에 더해 사업주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원 공백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

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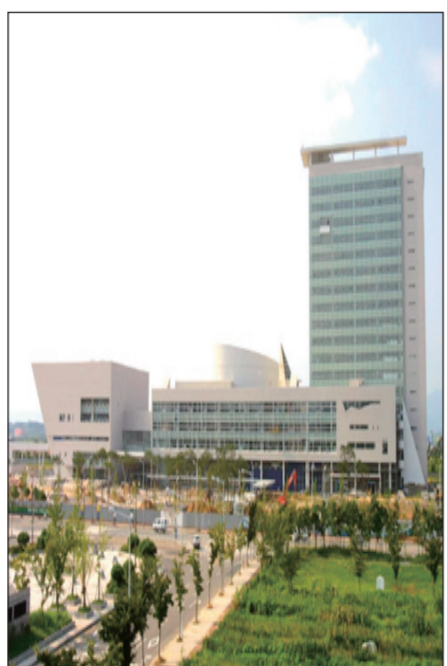
2020년에도 광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며 "최고의 경제안정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덕윤/기자



# 울산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가입

## 세계 최대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연합체' 가입

울산시가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실현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에 가입한다.

울산시는 6월 4일 오후 4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가입 및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송철호 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환경단체, 표창 대상자 등 9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국제협약 가입 신청서 전달,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지역 환경보전에 공이 있는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및 기업체 등 18명이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탄소중

립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앞서 울산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난 2월 4일 올해를 '2050 탄소중립 울산'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날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가입을 통해 울산시의 실천 의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간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연합체로, 뉴욕·런던 등 세계 각국의 1만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광역단체로서는 서울, 대구에 이어 3번째로 가입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록 ▲도시 취약성 분석·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감축 및 적응 행동계획 수립 ▲매년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50 탄소중립은 한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긴 과정으로 현재의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다."라며 "환경의 날을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시작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의 날'은 1972년부터 6월 5일을 유엔이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 경상북도 울진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무더기 검거

#### 어촌마을에서 은밀히 피어나는 마약(양귀비)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 후 양귀비 813주를 압수하였다.

울진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어촌마을 주택 뒷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신모씨 등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하였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띠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주인 일부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밀경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7월 말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가지고 밀경작 우려가 있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하여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 김해시,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일제점검 추진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원 불법 토지형질 변경 단속

용인시, 6월7일~7월2일까지...클러스터 대상지 중심 반경 19.59㎢ 대상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km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울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묵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관청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관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안산시,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안산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1개반 5명의 인력을 동원해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설물 붕괴, 침수 등 각종 재난사고 및 지반침하, 토사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지하보도, 상하수도, 공사장, 옹벽, 취약건축물 등이며,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안전점검팀, 안산도시공사, 토목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 대책과 공사장 주변 축대 등 구조물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 여부 ▲지반침하, 구조물 전도, 변형, 균열, 누수, 침수, 배수관 리 ▲옹벽, 담장, 석축 등의 파손 및 손상·균열 상태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설물 관계자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정부/기자



김해시는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동물보호관리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등 7개 업종 261개소로 업종별 시설과 인력기준 충족 여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영업장을 방문하여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전염병 발생이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동물을 종류와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육·격리공간을 제공하고 동물학대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 점검한다.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와 거래내역

서를 작성 하고 2년 이상 보관하는지, 판매가능한 월령을 준수하는지, 소비자에게 적절한 내용의 계약서를 제공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동물장묘업과 위탁관리업은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는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차 등을 포함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차 단속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

를 독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단속은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가 목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주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 태화강 국가정원 현장 점검

관할 태화지구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하고 격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6월 4일 오후 9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치안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7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으로 김태근 위원장과 유윤근 사무국장, 김옥수·이종형·주석돈 자치경찰위원, 시의회 이상욱 의원,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태화지구대

장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음주 소란, 시비폭행 등이 잇따라 주민 불편 신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민원이 많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소풍마당 등을 둘러본 후, 관할 지구대인 태화지구대를 방문해 치안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최일선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태근 위원장은 "규제와 시민의식 계도, 순찰 강화라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뿐 아니라 시민과 소통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이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6월 4일부터 22시에서 06시 사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취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기현/기자



### 거창군, 2021년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거창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수질 악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오물분쇄기는 한국 상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 사용이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육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

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사전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별 홍보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사용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연중 홍보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 경북도민체육대회 5일 출발 신호탄... 방역실태 현장점검

경북도민체육대회 도내 11개 시·군, 28개 종목, 6~9월 분산개최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6월 5일 영천에서 개최되는 '태권도 대회'를 신호탄으로 9월말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28개 경기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경북도는 도민체전의 출발을 알리는 첫 경기인 '태권도 대회'에 대해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하루 전인 4일, 영천체육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체육회, 시·군 등과 함께 대회 시작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 등을 파악·조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방역관리 대회운영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체육회 및 도내 시·군에 안내하였는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안내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경기종목별 세부방역지침 마련, 대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PCR) 및 사전 참가등록 확인, 경기시설 방역 및 소독, 방역용품 비치, 경기장 내 이동 동선 최소화, 의심환자 격리공간 마련, 방역담당자

지정,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도민체전이 무사히 마무리 될 때까지 도체육회 및 시·군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경기시설 및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도민과 선수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철저한 방역관리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선수들이 대회기간에만 아니라 훈련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세기/기자





# '컴백홈' 종영 D-2, 거미, "남편 조정석 음원 강자 타이틀. 기분 좋지만 동시에 위기감"



KBS 2TV '컴백홈'에 출연한 가수 거미가 남편 조정석이 음원 강자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공개한다.

청중들의 서울살이를 응원하는 명랑힐링쇼 KBS 2TV '컴백홈'(연출 박민정)이 오는 5일(토) 10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을 종료하는 가운데, 마지막 게스트로 '연예계 절친' 가수 거미와 방송인 김신영이 출연한다. 두 사람은 거미가 2008년에 살던 상수동 자취집으로 컴백홈 할 예정.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거미는 남편 조정석과의 꿀 떨어지는 첫 만남 비화를 공개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거미와 조정석이 가수 영지의 소개로 처음 만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출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계기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이에 거미는 수줍은 표정으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털어놓아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나아가 거미는 "그래서 아직도 서로 '누가 먼저 좋아했나. 너 나 나냐를 두고 실랑이를 한다'며 알

콩달콩한 비화를 덧붙여 현장을 일순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그런가 하면 거미는 조정석이 '아로하'로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떠오르는 음원 강자 타이틀을 얻은 것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남편의) 음원 강자 타이틀이 좋는데 한편으론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힌 것. 거미는 "어쩌다 내 영역까지 차지 했나 싶다"며 돌연 본업 모드를 가동해 웃음을 자아냈다는 전언이다. 이에 유재석은 "이 참에 부부 가수를 하자. 지금 가요계에 이 시장이 비어있다"며 깨알 같은 기획자 마인드를 뽐내 폭소를 터트렸다.

한편 이날 거미는 남편 조정석과의 설렘 가득한 첫 만남 뿐만 아니라 달달한 결혼 생활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일로 부부의 뒷이야기들을 대 방출했다고 해 '컴백홈' 마지막 방송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KBS 2TV '컴백홈' 최종회는 오는 5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 '대화의 희열3' 육아멘토 오은영, 위로+울림 전한 '부모학개론'



모든 부모들에게 전하는 오은영 박사의 '부모학개론'이 진한 울림을 전했다.

지난 6월 3일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3'(연출 신수정)에서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의 두 번째 대화가 펼쳐졌다. '국민 육아 멘토', '육아 대통령'으로서 전문가 오은영의 모습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둔 '현실 엄마' 오은영의 모습까지. 진중하고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육아 철칙을 들려주는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이날 오은영은 부모들을 위한 명품 조언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오은영이 강조하는 단 하나의 육아 철칙은 '체벌 금지'였다. 오은영은 "자식은 나와 분리된 다른 인격체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라며,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벌의 공포와 위험성, 점점 강도가 세지는 체벌의 중독성을 말했다.

오은영은 아이 앞에서 '욕'하는 부모들의 마음에도 공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바로 부모와 아이를 위한 멈춤의 상태 '15초의 마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15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모 각자에게 맞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즉, 욕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을 때에는 아이에게 '어른답지 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육아 대통령' 오은영도 아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는 '현실 엄마'였다. 오은영은 2008년 대담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수술로 들어갈 때의 심정을 밝혔다. 오은영은 "목놓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갔다. 통곡을 하며 끼어 끼어 울었다. 그 짧은 시간에 아들과의 추억이 스치며 한 번 더 안아줄 걸, 쓰다듬어 줄 걸, 눈을 맞추길 후회의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은영은 "현실 엄마로서 나는 70점 정도 인 것 같다"고 평가하며, 방송 때문에 아이의 옆에 있어주지 못한 '워킹맘' 오은영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모들에게 조언도 전했다. 오은영은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와의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대하면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여기에 어떤 돌보이 말과 부모 스스로도 돌보아야 한다는 오은영의 이야기는 TV 앞 모든 부모들에게 큰 위로를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악영향을 받은 아이들에 대한 대화도 펼쳐졌다. 코로나 19 이후 아동학대가 2배 증가했다는 것. 오은영은 "실제로 사랑의 매가 많이 팔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드러난 거다. 감정 분출 대상은 약자, 아이에게 옮긴다"고 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오은영은 "내 아이를 소중하게 돌보듯 남의 아이도 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남의 집과 얼굴 붉히는 일이 두려워서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어른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따스한 조언을 남긴 오은영의 말은 진한 울림을 전했다. 오은영은 "육아를 너무 비장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비장하게 하면 힘들다. 우리에게도 쇠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다. 아이가 오늘 못하면, 내일 가르치면 된다"라며, "360도 중 1도 정도, 조금만 변화를 주면 된다. 이 변화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TV 앞 평범한 부모들에게 전하는 오은영의 '부모학개론' 방송이었다. 오은영은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방법, 어른의 역할을 이야기 하면서, 또 부모들에게 따스한 위로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의 친한 영향력이 파괴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방송 후 "오은영 박사님 말씀에 많이 배웠다", "우리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야겠다", "육아하며 지쳤는데 위로받았다" 등 다양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다음 방송에서는 '대화의 희열' 역사상 최초 두명의 게스트가 출연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전설 박지성과 차범근이 출격을 알리며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KBS 2TV '대화의 희열3'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 '티키타카' 패셔니스타 봉태규X조세호 출격! 명품패션 비하인드 대방출!

6월 6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티키타카'(이하 '티키타카')에는 대한민국 대표 패셔니스타 봉태규와 조세호가 탑승해 명품 패션에 얽힌 흥미로운 비하인드를 쏟아낸다.

이날 봉태규는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던 치마 패션에 대해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MC들을 놀라게 만든다. 앞서 봉태규는 제작보고회에 명품 치마를 입고 등장, 파격적인 스타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과연 봉태규가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 치마를 택한 것인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어 봉태규는 드라마에 입고 등장해 완판시킨 해외 명품 브랜드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전한다. 특히, 봉태규는 명품 브랜드의 디자이너로부터 받은 자필 편지를 공개해 그 편지 내용에 호기심이 집중된다. 또한, 봉태규가 현장에서 직접 공개한 명품 브랜드

의 선물 언박싱에 MC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후문.

뿐만 아니라 봉태규는 드라마에서 명품 브랜드를 입고 된 특별한 계기를 공개했고, 봉태규의 설명에 MC들 모두 감탄했다고 전해져 그가 명품을 입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그런가 하면 최근 20kg 감량에 성공, 더욱 볼오른 패셔니스타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조세호는 명품 패션에 얽힌 루머에 대해 밝힌다. 이날 조세호는 "명품 브랜드에서 입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소문이 있더라"라고 털어놓아 현장을 술렁이게 만든다. 그 진실은 무엇인지 본방송이 기다려진다.

'티키타카'는 달리는 차 안에서 펼쳐지는 신개념 드라이브 뮤직 토크쇼. 봉태규와 조세호의 유쾌한 수다와 라이브를 만날 수 있는 '티키타카'는 6월 6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 '놀면 뭐하니?' 유 본부장, 충격 비주얼 '오중바르템'과 면접!

MBC '놀면 뭐하니?' 유 본부장이 충격 비주얼의 면접자와 대면한 모습이 포착됐다. 자신을 '바르템(권오중)'이라고 밝힌 지원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주얼과 전혀 다른 반전 매력으로 유 본부장의 폭소를 유발했다고. 귀에 때려 박히는 그의 거친 매력은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는 5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태호, 유재석, 김민준, 왕종석, 작가 최혜정)에서는 JMT(조이 앤 뮤직 테크놀로지) 유재석 본부장(이하 유 본부장)의 '고독한 면접'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고독한 면접'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유 본부장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오싹해지는 충격 비주얼의 지원자, 90년대생을 대표하는 당돌하고 솔직한 지원자와 만남을 가진다.

반상치 않은 어둠의 포스를 뿜어 내며 등장한 지원자의 모습에 흠칫 놀란 유 본부장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속 주인공과 미친 심크로울을 자랑하는 지원자는 바로 '바르템(권오중)'.

'바르템(권오중)'의 광기 가득한 눈빛과 미소에 유 본부장은 "저승사자인 줄 알았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등골이 오싹해진 유 본부장이 '바르템(권오중)'을 결심질로 보는 모습이 폭소를 자아낸다.

'바르템(권오중)'은 면접이 이어질수록 강렬한 외면과 다른 반전 내면으로 유 본부장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한식, 양식 조리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은 물론 쿡후 유단자이자 댄서로도 활약, 화려한 이력을 뽐냈다. 특히 댄스 배틀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직접 춤을 선보이기도.

음악이 흘러나오자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거침없이 스텝을 밟는 '바르템(권오중)'의 모습에 박수를 치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트린 유 본부장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런가 하면 애처가 면모를 드러낸 '바르템(권오중)'은 천사와 악마를 오갔던 과거를 청산(?)하고 '전체관람가'로 거듭났다고 밝혔는데, 직장인들의 속을 뽐 풀리게 만들어주는 '진상' 직장 상사를 향한 차진 욕(?)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귀에 때려 박히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전언이다.

이 밖에도 개그계 대표 90년대생이든지 유 본부장 앞에서 당당히



썸남을 오픈하는가 하면 확고한 자기 목표를 이야기하는 솔직 매력을 발산할 예정.

비주얼 충격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줄 유 본부장의 고독한 면접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는 5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의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부캐' 신드롬을 일으켰다. 코로나 시대에 잃기 쉬운 웃음과 따스한 위로를 동시에 전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 [롯데 오픈 1R] 안송이, KLPGA 투어 롯데 오픈 첫날 단독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오픈에서 안송이 선수가 첫날 단독 선두에 올랐다. 안송이는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다. 공동 2위 최혜진과 송가은에 1타 앞선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2019년 11월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을 거뒀고, 지난해 9월 팬텀 클래식에서 2승째를 기록했던 안송이는 KLPGA 투어 통산 3승에 도전한다. 올 시즌 아직 우승 없이 대상 포인트 부문 22위, 상급 랭킹 30위에 머물러있는 최혜진은 4언더파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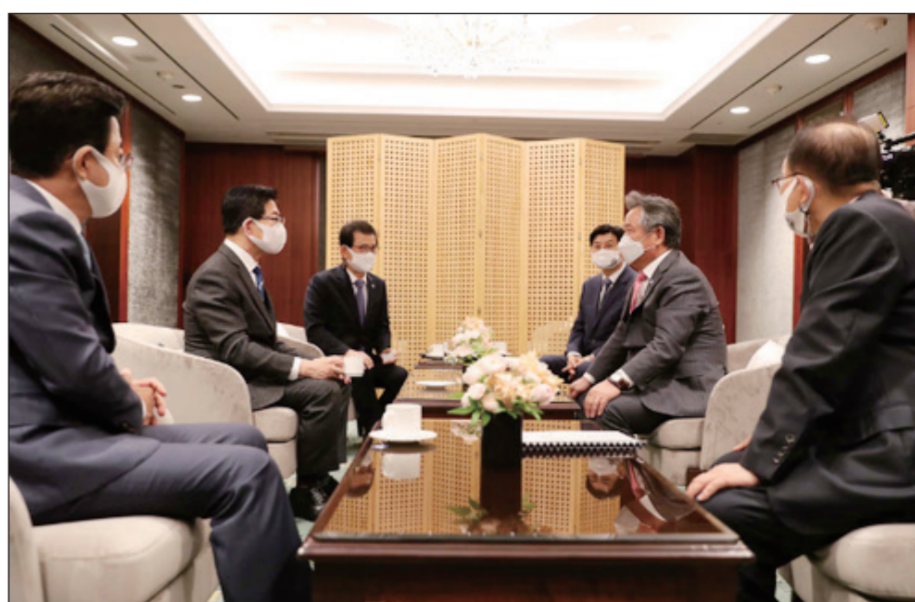
2위로 패조의 출발을 보이며 최근의 부진을 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첫날 1번 홀에서 출발한 최혜진은 3, 4, 5번 홀 연속 보기로 3오버파를 기록하다가 이후 버디만 7개를 잡는 저력을 발휘했다. 신인왕 부문 선두인 송가은이 최혜진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고, 지난해 E1 챔피언십 우승자 지한솔은 첫날 4오버파로 부진했다. 올 시즌에만 3승을 올리며 다승과 상급, 대상 포인트 부문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박민지는 휴식 차원에서 출전하지 않았다. 총상금 8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6일까지 4라운드로 열린다. **전순희기자**

## 충청남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불지땀다

### 3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충청권 4개 시도 유치 신청도시 확정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확정돼 충청권 내 개최의 불을 지폈다. 도는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도)가 '제34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신청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절차에 맞춰 지난 3월 22일 신청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접수한 바 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4월 평가위원회 실사와 국제위원회 심의, 의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지난 5월 11일 대의원 총회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를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확정했다. 이번 국내 유치 신청도시 선정에는 현장 실사와 실무 심사를 통해 살펴본 운영 재정 절감 계획 등 4개 시도 공동의 개최 의지와 대회 준비 역

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은 앞으로 유치 신청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오는 2027년 7~8월 개최 예정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주관 국제스포츠 대회로, 최근까지 유니버시아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스포츠를 통한 교육과 문화 등 교류·발전을 추구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회 유치 시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정부의 공동 개최라는 장점을 살려 충청권 내 기존 시설 30개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유치가 확정될 시 추진하는 경기장 신·증축, 기존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등으로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돼 충청권역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2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호기자**

### 황의조 최다골, 손흥민 도움 1위... 벤투호 중간 기록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국가대표팀이 6월 5일부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경기를 치른다. 6월 5일 투르크메니스탄, 9일 스리랑카, 13일 레바논과 차례로 대결한다. 대표팀은 5월 31일 파주NFC에 소집돼 맹훈련중이다. 2018년 8월 출범해 어느덧 2년 10개월에 접어든 벤투 감독 체제의 대표팀을 주요 기록으로 살펴본다. # 28전 16승 8무 4패, 득점 42, 실점 20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벤투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이 치른 A매치는 총 28경기. 2020년 올림픽대표팀과의 스포셜 매치 2연전은 A매치가 아니므로 제외한 숫자다. 결과는 16승 8무 4패로 승률은 57%. 패한 경기는 브라질, 카타르, 멕시코, 일본전이었다. 득점은 42골, 실점은 20골로 득점이 2배 정도 많다. 최다 골차 승리 경기는 2019년 스리랑카를 8-0으로 이긴 것이다. 최다 골차 패배는 2019년 브라질전과 지난 3월 일본전에서 기록한 0-3 패.

이로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이기재(수원삼성)는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할 경우,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 랭킹에서 29세 11개월로 8위가 된다. # 정상빈이 '2002 월드컵둥이' 선두 주자 2002년은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 축구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해다.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둥이' 중에서는 이번 2차 예선에 발탁된 정상빈(19)이 가장 먼저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러나 정상빈이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역대 최연소 A매치 데뷔전 랭킹은 20위권 밖이다. 차범근, 최순호, 손흥민 등 열아홉 살이 되기 전에 A매치를 치른 선수가 과거에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 이용과 정상빈의 나이차는 열여섯 살 오랜만에 발탁된 이용(전북)은 올해 서른다섯 살의 대표팀 매향이다. 막내 정상빈과는 열여섯 살이나 차이가 난다. 역대 대표팀 소집 명단 중에서 최고참과 막내의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났던 것은 열아홉 살. 2008년 2월 칠레와의 친선경기 때 골키퍼 김병지가 서른여덟, 당시 막내였던 구자철이 그 절반인 열아홉이었다. # 역대 최장 사령탑 벤투 감독 2018년 8월 22일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기를 시작한 벤투 감독은 6월 1일로 부임한지 2년 283일이 됐다. 이로써 벤투 감독은 1948년 대표팀이 출범한 이래 단일 임기로 가장 오래 감독직을 수행한 지도자가 됐다. 지금까지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2년 264일(2014년 9월 24일 ~ 2017년 6월 15일)이 최장이었다. 3위는 남아공 월드컵 사령탑이었던 허정무 감독의 2년 181일. **최광수기자**

### 광주광역시체육중 태권도부, 2021년 전국중별태권도선수권대회 맹활약 금4, 은1, 동4 획득

광주체육중 태권도부가 5월 29일~6월 3일 경상북도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21년 전국중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에서 금4, 은1, 동4개를 획득했다. 3일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500여 명의 중학생 선수들이 대거모여 참여했다. 남중부 페더급 2학년 김태유 선수와 밴텀급 1학년 이현준 선수, 여중부 플라잉급 2학년 김강희 선수와 1학년 밴텀급 강한별 선수는 준결승과 결승 경기에서 상대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 핀급 2학년 임태연 선수는

결승 3회전까지 10:10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1초를 남기고 실점해 어렵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라이트미들급 3학년 이정훈 선수와 2학년 페더급 박호연 선수, 여중부 밴텀급 2학년 문정민 선수와 헤비급 1학년 김재량 선수는 준결승에서 각각 아쉽게 패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 김제안 교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여러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며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열심히 노력한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울주군청 불링팀, 임동군 선수 개인종합 1위·단체전 2위

울주군청 불링팀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경북 구미 복합스포츠펀터 불링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9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남녀중별불링선수권대회에서 임동성 선수 개인종합전에서 1위를 차지하고, 단체전(5인조전)에서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종합전 우승을 차지한 임동성 선수는 병역을 마치고 올해 울주군청 불링선수단에 등지를 뜬 선수로, 두번째 대회 만에 울주군청 불링팀 2021년도 첫 우승자의 영광을 달성했다. 참고로, 개인종합전은 개인전과 2

인조전, 3인조전, 5인조전 모든 종목에서 개인별 획득한 점수의 총합으로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종목이다. 임동성 선수의 우승에 이어 울주군청 불링팀은 단체전인 5인조전에서 2위의 성적을 거두며 기분 좋게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성용 울주군청 불링팀 감독은 "지난 대회에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안동시유소년야구단 전국대회 준우승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소속 안동시 유소년야구단은 지난 30일 제1회 황성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꿈나무(현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김유준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강민규 감독이 우수감독상을 수상하며 안동시유소년야구단의 첫 전국대회 임상을 빛냈다. 2020년 5월 창단한 안동시유소년야구단은 창단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는 신생팀으로 조대 라형진 감독

을 시작으로 2대 강민규 감독까지 프로출신 감독을 영입하며 총 29명의 선수들과 3명의 코치진을 중심으로 주 2회씩 훈련하고 있다. 강민규 감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렵게 훈련에 임해 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1년이라는 시간을 지켜와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세기기자**



벤투 감독 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단연 황의조다. 황의조는 23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다. 평균 2경기당 1골씩은 넣은 셈이다. 그 다음은 스리랑카전에서 혼자 4골을 꽂아넣은 김신욱이고, 손흥민과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가 3골로 공동 3위다. 도움 랭킹은 손흥민이 6개로 1위다. 소속팀 토트넘에서처럼 골 못지않게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손흥민의 역할이 대표팀에서도 빛났다. 도움 6개중 황의조의 골을 도움 것이 3개로 가장 많다. 도움 2위는 5개를 기록한 홍철. 최다 출전 선수는 황의조, 김민재, 황인범, 김영권 4명이 각각 23경기씩 나서 공동 1위다. # 첫 발탁 선수만 30명, A매치 데뷔는 18명 지금까지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 처음 발탁한 선수는 30명이나 된다. 부임 후 첫 경기였던 코스타리카전에 송범근, 김문환, 황인범을 부른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 8명, 2019년에 7명, 2020년에 10명(올림픽대표팀 스페셜 매치 포함), 올해는 5명이 처음 호랑이 엠블럼을 달았다. 벤투 감독 하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는 총 18명이다. 2018년에 6명, 2019년 6명, 2020년 4명, 올해 2명이다. 가장 어린 선수는 조지아전에서 데뷔한 이강인(18세 198일)으로 역대 7위에 해당한다. 한편, 늦깎





# 보약같은 쉼표하나

##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쉼표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